COR.1-21
Vol.10 (469)

整理儀軌

城役

四十六

共四十八

COR
1-21
10
46

ÉCOLE SPÉCIALE DES L.L.O.O. ORIENTALES

화성성여계치를

을묘구월을이시비치를일으실시에창룡문상량홀셔

COR. 1-21
Vol. 10 (46)

경어의계 권지스시브륙

화성성여계치를

을보수원을이시브치를이를보시에창룡문근상령을셔

의수도심터의세 젼년흉오사륙장각각각

육간회이마의제진흉은상령문을하중흉여들

보강은더너흐화흉호시니그글에골오뒤

복이 원능을육시니봉 의릉어원을호

왕중이숙죽니호시 중금뒤어중릉에

원능에진실노신졍이뎌옷시니 의릉을원봉의

반드시보고

엄히여쭈옵는니

왕중이뵈나라흘닉희시니금뎌 옷깃라쇠니산 천을닐흔말숨

노중련 섭섭성 문 에글닌듯다

그시셰동지근이차 글너이셩동편은이라

듁위한남지승이를 듁뼈이한남의형승이되얏듯다

범증화복노 셩각홈젼네이화셩망홀은

붕아 죽주가를 우희주실엇닉홀붕호엿듯다

황제제시니호 시뼉넝주지근이오

쳥오즈셔니호 현여 셩인지장이라

황제 젼 시뼉을 셔의 쳥의 방셔 상셔를 호야하노흥은 셩인의 감츈이스을 홀즉호시듯다

북은이중어중반이오 참은중이시되인덕 길흐호고

황제(건주)ᄂᆞᆫ 거앗ᄀᆞᆯ여ᄉᆞᆨ 호ᄂᆞᆫ 년ᄋᆞᆼ의 근ᄋᆞᆯ 여ᄅᆞᆫ 엇ᄃᆞᆫ

쳥의 방셕(거쳐) 상셕ᄅᆞᆯ ᄃᆞᆫ호ᄋᆞ야 호ᄂᆞᆫᄃᆞᆫ 셩인의 감ᄃᆞᆫ이 셔ᄅᆞᆯ 뎌ᄅᆞᆯ ᄌᆞ오ᄉᆡ 돔ᄒᆞ

ᄇᆞᆨ은 기ᄌᆞ어ᄅᆞᆼ 반(이)오 쳠은 ᄅᆞᆼ이 ᄉᆡ셔 인ᄃᆡ 길ᄂᆞᆫ 호ᄃᆞᆫ

ᄀᆞᆫ윽 쳠ᄇᆞ어 ᄭᅦ 제(ᄀᆞ로) 징ᄃᆞᆯ ᄇᆞᆫ 거ᄇᆞᆨ의 ᄀᆞᆯ에 마ᄌᆞᆫ ᄃᆞᆨ

ᄉᆞᆨ 앗 증쳥 산 앗 증녀(호) 시ᄋᆞᆯ 방지 ᄆᆞᆼ 거 ᄌᆞᆯ리(ᄃᆞᆫ호)

이 ᄇᆞᆫ 셩읍 삼ᄇᆞᆫ 셩ᄃᆞᆫ(호) 녀ᄉᆞ 졍지 민ᄆᆞᆯ 쳠셩(이)라

ᄆᆞᆯ은 ᄆᆞᆯ 라ᄋᆞᆷ이 너ᄉᆞᆫ ᄃᆞᆫ ᄉᆞᆫ 로ᄆᆡ 호ᄂᆞᆫ 중ᄆᆞᆷ이 너ᄒᆞᆫ ᄃᆞᆫ ᄒᆞᆫ 이ᄅᆞᆼ 방의 ᄆᆞᆷ ᄋᆞᆼ

거 비로ᄉᆞ 뼈ᄅᆞᆯ 너이ᄃᆞᆫ

ᄃᆞᆨ 화의 ᄃᆞᆫ ᄅᆞᆼ이 이ᄌᆞᆼ ᄀᆞᆯ 씨 회의 ᄌᆞᆼ 표이 이ᄅᆞᆯ ᄀᆞᆫ ᄉᆞᆨ 셩의 빈ᄆᆞᆯ

이 쳠례 셩ᄒᆞ도다

개지 션ᄒᆞᆼ지 중ᄒᆞᆫ샤ᄒᆞ 니개 션ᄒᆞᆼ의 중ᄒᆞᆫ 홈믈 진념ᄒᆞ옵샤

ᄀᆞᄅᆞᆫ 원음ᄇᆡ 정영이라 ᄀᆞᄅᆞ 원음에 정영ᄒᆞ시믈 브즈런ᄒᆞᆫ 시도다

욕찰ᄒᆞᆯ씨도ᄃᆞ ᄒᆞ시 욕찰실ᄉᆡᆫ의 비결ᄂᆞᆯ 니드ᄅᆞᆯ 헤치오시ᄃᆞ

금라셜ᄒᆞᆯ법ᄆᆞᆨ이 금라 법녕ᄋᆞᆯ시 ᄅᆞᆫ말ᄉᆞᆷ ᄅᆞ 법ᄆᆞᆷ을 베프신거ᄉᆞ

니즉셜ᄅᆞᆯ장ᄋᆞᆼ의즉저ᄆᆞᆷ녕이니ᄒᆞᆫ 욕연원남지 링ᄀᆞ의

하블ᄋᆞᆼ민년상ᄇᆞᆷᄇᆞᆯ벋ᄭᆡᆯ중ᄒᆞᆫ니의 여ᄃᆞᆨ욕은지 ᄆᆡ신ᄀᆞ이ᄋᆞᆫ

안힌즉장ᄋᆞᆼ영ᄋᆞᆯ베프ᄅᆞᆯ밧긴즉 정이ᄉᆞᄅᆞᆯ점ᄒᆞ시ᄂᆞᆫ 욕연히

ᄆᆞᆫ니보신 큰ᄌᆞᆨ뫼시오

이 ᄀᆞᆷ 문ᄇᆞᆯ 셩의 셩ᄆᆞᆷ일ᄋᆞᆼ 뫽인시ᄉᆞᆫ이 욕ᄌᆞᆨ제ᄉᆞ금ᄌᆞᆫ원 셩인의 ᄎᆡᆨ임

ᄒᆞᆼ오시니 안ᄌᆞᆷ갑ᄀᆞ ᄒᆞᆼᄅᆞᆯ ᄂᆞᆫ천ᄒᆞᆼ시ᄂᆞᆯ 셩인의 결ᄀᆞᆫ이샹ᄉᆞ가

ᄋᆞᆫ로ᄇᆞᆫ니영지ᄇᆞᆨᄒᆞᆫ 아ᄂᆞᆫ즈ᄀᆞᆯᄆᆞᆷ을자 샹지ᄒᆞᆫ

멀니보신 큰국뫼시오

아릭를빅성의힘을아ᄭᅡ보호시ᄋᆞ우ᄒᆞ올ᄲᅢᄉᆞᄅᆞᆼ젹ᄀᆞᆯᆞᆯᄆᆞᆺ
ᄒᆞᄋᆞ오시ᄂᆡ아ᄌᆞᆷ감ᄀᆞ홀ᄂᆞ온쳔ᄂᆞᆫᄒᆞ시ᄂᆞᆫ 셩인의ᄀᆞᆯᆞᆫ이ᄉᆡᆼᄀᆞ

은근ᄇᆞᆨ거졍지ᄇᆞᆨ니ᄒᆞ악ᄋᆞᆨᄌᆞᄅᆞᆷᄀᆞᆯᆞᆯᄌᆞᆫ상지ᄀᆞᆯᆞᆫ

셩의ᄋᆞᆫ뼝실지졀ᄒᆞ니ᄀᆞ거ᄇᆞᆯᄀᆞᆯᆞᆯ이셩아ᄀᆞ로

구ᄅᆞᆷᄇᆞᄌᆞ휘ᄃᆞᆯᆞᆯ ᄋᆞᆯᄀᆞ졍비ᄑᆞᆫ건신의도쳐로ᄊᆡ여ᄂᆡᄉᆞᄌᆞᆯᆞᆯ의도ᄋᆞᆷ미잇

ᄂᆞᆫᄃᆞᆺᄒᆞᄃᆞᆺᄒᆞ

ᄲᆞᄅᆞᄅᆞᄀᆞᆯᆞᆯ이뼝실ᄌᆞᆯᆞᆯ맛ᄃᆞᆫ별ᄌᆞᆫ집지이ᄌᆞ최ᄂᆡ비최ᄂᆡ가ᄀᆡ나ᄀᆞᆯᆞᆯ이ᄉᆞᆺᄒᆞᄒᆞᄋᆞ이ᄌᆞᄋᆞᆨᄆᆞᆯᆞᆯ

ᄀᆡ앗ᄀᆞ홍ᄒᆡ로ᄉᆞ

어ᄋᆞᆫ하ᄋᆞᆨ위지ᄎᆞᆯ화위락ᄂᆡᄒᆞ

그이오랜이든벽지이성에라

이에하수를인솟에붓을삼으며화산을보래아성을삼으며

뵈가숫판이감이되고이을벽치첨이성이된배로나

일월을분수이왈제로삼고왈호참수왈츅귀후 성지어츅략에오

상기음앵라기누천탁기슬음원협기황간늣글군천어지휘서홀

호나흔줄은보근수오르글은줄은저로오세흔줄은호참이오

네흔줄은츅귀후 우한성화츅략즈북 성인의지혜를주라의부치시고

음음앵을보고흔줄보심을보고나흔뎌와뉩흔뎌를혜아리즈시며

줄을의나모든모천을지휘호시노뎌굴흘세

파즈뎌누도지성경 야 반도시누로누의영장호물기도원

방전쇄액지장이라 복야흔줄쇄액의장은호물보위로사

필경 누로지경(야)호 반드시 누(문)의 영장(호)을 기둘워
방건쇄액지장(이)라 복야(호)를 쇄액의 장(호)을 보워룻다
인즁치원(니)호 갑즉진혜지제(유형거 제도)를 의지(가)로
병약변방(니)호 구셩으로 지역이시(니)라

뭇거온거슬 둘워 여먼덕이을 위야 갑즉진혜 제도를 의지
로반포즁(호)시고

위즁을 반로로 방수를 보변(호)야 구셩을 누방(청라문)의 역
로이에 비릇도다

누방영위지도를 명(이)앙(호)즁지리(이)

덕중순수지의로의비옥환지벽수라

낙양의경위춘말씀(경운라조) 홍신등왕은승헤주의보든분을뗘슬러

옥쉬옵보고

덕중산헤의술수홍신을위의로맛강히옥술의술은벼슬시글로

출너라

비젹무선묵지주호야 이에적목벌중방의지위를점득홈아

수덕복상지헤라 드러여복상의허물덕홍엿도다

읍피를갈이셔첨밤호상근창득이오

리을떨이중제니젼님중성이라

팔을갈을산을마자셔원을중을복와복이오홀정수홀의갓갑은

훈번이를쓰러중원을제어홍이암희중성중 일을님홍엿도다

장중회금랑의원지를굿게홀것라

피를나를산을미자서원을불러보내옥중을창출하
흔떤을써서중원을제어중이암희중생을입을님중써스두라
장이중금랑지혐이라 장출희금랑의형지를구게홀길라
옥시라중에지세로 이에중에의과세를멍에홍뎟두라
예장경남지버옥에 풍중구포지버이오
조절을중각지저신에 운련로열지각이를
예장라경남각적목 일홈이나모도히보름은구포의도비를보내고
조절을 렌터중라중각 출혀이이에새로오다구름은중만의집을본홍뎟두라
천로라근중하비장안신님보지존이오

금방을 현(현)니 응섬(섬)제 칠슈지호(호)니(로)

쇠신이 흠히 스스시여 낭안심보의 흠흠을비호(호)

금방(현) 팔을 최엄을 동하시여 섬제 칠슈(동방) 별 의일흠을 응호(호)오(도)라

슈지즉(즉)니 거희 멸(멸)주드(드)러니

명엔져 즈(라)니 일흠호야 말(말)호매 이에 잇(잇)도(도)라

랑랑호(호)보 득반(반)호(호)고 거허(허)지 주(주)시오

창창잔기정선(선)니(이) 개현(현)응지 막여(여)니(라)

랑랑(랑)호여 시(시)원(원)흠반(반)드지 못(못)호(호)여 진(진)실(실)노(노)써 회허(허)흠을 주(주)

허미(미)어 흠(흠)주(주)호(호)

창창(창)호여 미(미)오반(반)은빈(빈)쇠(쇠)여 제(제)개(개)하 놓(놓)의 뜻(뜻)이오 미(미)이 주(주)

미엄(엄)주(주)

창창숭미그바른빗치여거개하늘의쁘이오미이르러
미업도다

삼쳑눅그등지회ㄴ시회빙츌지사이오
구장오셕지회ㄴ몽복젼야지상ㅣ일을

삼쳑와눅그등중복픔수의빗춘쎄빙츌멍에의두좌옷은
구장라오셕그의즁심은쓰이어쎄밤상셔의마진두라

션듁이을어시ᄂᆞᆯ닉랑츈오힐지셔쳑ㅣ호
츌비온어화등닉호영즘즁여지쳥파ㅣ를

나ᄂᆞᆯ을새ᄇᆞᆨᄂᆞᆫ의ᄂᆞᆫ쳐어든다빗츈오힐ᄒᆞᆫ의셔쳑ᄀᆞᆯ츈

책 숭ᄉ

구름이 그림기 중에 아츰의 놀라 시여 그림주는 중여 무지게ᄒᆞ
ᄅᆞ러ᄂᆞᆯ 보ᄂᆞᆫ
ᄋᆞᆫ닐 졀의 즘ᄌᆞᆼ 중사

즈ᄋᆞ시ᄆᆞ이 셩ᄋᆞ니ᄒᆞ 모든 ᄲᅳᆷ을 뵈이실 ᄊᆡ시ᄋᆞ

일ᄋᆞᄉᆞ 위ᄃᆞᆫ가ᄅᆞᆯ 술번 ᄂᆞᆯ시미 법이 되중사

숙ᄃᆞᆼ현지화 귑ᄂᆞᆯ니ᄒᆞ 미져 산하ᄋᆡ

최ᄆᆞ정강지녀 여ᄋᆞ니ᄒᆞ 츠ᄌᆞᆯ 얻상ᄂᆞᆫ가ᄅᆞᆯ

ᄃᆞᆼ현의 빗난 ᄯᅴ 귑ᄋᆞᆯ 심ᄋᆞ시 아츰 갑ᄀᆞ 의와 ᄆᆞᆯ이오

저ᄋᆞ산 라ᄑᆡ은ᄂᆞ 의 ᄯᅴ여 기ᄃᆞᆼ을 정침지어 시ᄉᆞ 츠ᄌᆞᆯ 쳑ᄀᆞ 홍시ᄂᆞᆫ 시ᄉᆡ와 이ᄉᆞᆯ 일ᄀᆞ

ᄌᆞ 사ᄂᆞᆫ ᄆᆞ피ᄅᆞᆯ 저ᄋᆞ상 져ᄉᆞ하

이ᄋᆞᆸ사ᄂᆞ ᄯᅴ 뼝ᄇᆞᆫ 국ᄀᆞ가ᄅᆞᆯ

ᄃᆞᆼ현의 빗난 ᄯᅴ 귀ᄒᆞᆫ 을 시ᄆᆞᆷ ᄀᆞ이 ᄉᆞᆯᄆᆞᆷ ᄂᆞᆫ 뇌와 ᄀᆞᆮᆞᆯ이오

져ᄋᆞᆫ 산 은ᄂᆞᆫ 라ᄇᆡ 의 ᄇᆡ셔 기 ᄃᆞᆼ 을 ᄀᆞᆯᄒᆞᆼ 쳐ᄆᆞᆷ 지 어시ᄆᆞ 츠 ᄀᆞᆯ 을 쳐ᄀᆞ ᄒᆞᆫ 시ᄂᆞᆫ 쇠 쇠와 이 ᄉᆞᆯ 이 ᄉᆞᆯ ᄀᆞ

ᄀᆞ 산 보 피 ᄅᆞᆯ 져 ᄋᆞᆼ 상 져 ᄒᆞᆫ 샤

이 ᄋᆞᆷ 샤 ᄲᅵ 뼝 보 ᄋᆞᆫ ᄀᆞ 로

ᄃᆞᆼ 화 봉 ᄇᆞᆷ 건 뎌 ᄃᆞᆼ 신 에 ᄉᆞᆷ 모 ᄒᆞᆫ 옹 심 이 반 ᄃᆞ 시 상 져 ᄅᆞᆯ 중 셩 ᄒᆞᆼ 샤

ᄀᆞᆯ 에 니 샤 ᄅᆞᆯ 이 예 ᄇᆞᆫ ᄋᆞᆫ 국 로 이 ᄅᆞᆯ 홈 ᄒᆞᆼ 시 ᄃᆞᆼ 화

한 이 올 ᄀᆞᆼ 지 ᄒᆞᆫ 니 ᄒᆞᆯ 개 왜 금 숙 지 미 ᄅᆞ 이 오

ᄌᆞᆨ 방 심 ᄉᆞᆨ 는 지 ᄂᆞ 니 ᄒᆞᆯ 갱 원 션 친 ᄆᆞᆷ 지 첨 의 ᄀᆞ 로

한 니 화 히 오 ᄅᆞᆼ 의 호 길 을 옴 기 여 ᄯᅴ 개 금 숙 첨 의 미 ᄅᆞ 이 홈 ᄅᆞᆯ 왜 ᄒᆞᆫ 미 오

ᄌᆞᆨ 니 화 히 심 ᄂᆞᆫ 의 길 을 ᄃᆞᆼ 화 샤 시 ᄀᆞ 기 ᄒᆡ 션 친 의 첨 의 ᄒᆞᆼ 시 ᄅᆞᆯ 왼 ᄒᆞᆼ 을 ᄃᆞᆼ 화

을 ᄇᆞᆯ 지 ᄋᆞᆨ 니 ᄉᆞᆨ 니 ᄒᆞᆼ 봉 상 갱 낙 지 ᄌᆞᆨ 이

군주복기가시온니 호시 적현수간지시거로
을쓰의낙양을니즐시니잔은장낙의술을받드옵시오
군적시를가즐보젇호시니거믄르스간시젇명의시를시엿도다
식최삼파즐지좌청오이 비춘삼팔북성의최편프름을최호오
넉비주오지현어가를 넉은주오군위의하즐어시물밧줍도다
청소낭원을에중남수지중님오에
아가득호노의북문지외어가를
모히은밤불힌동즁의남수에올나님호즐중음호옵소
아훈노최와득춘노북문에밧즐막음즐의지즁옵도다

수장만년지즁야 이에만년의즁수즁호물가져
중즈수위지수라 중정즁에수위의즐느즙즈이다

이에 만년의 종숙 효를 가져
중정 숭예 숙위의 글로 돕는 이와
옥좌 위 푸른 옷 동에
우러러 천성이 순수 중용 길 궁의 드높이 이를 보았도다
봉수 강이 길보를 바라 것 듯이
천년의 정수리 회를 물리치고 흐뭇하도다
옥좌 위 푸른 옷 섬에
비로소 집물아 호구비에 블은 춘혜 빗나도다
옥화 춘석 영화 역의

수장 만년지 종야
중정 숙위지 수라
옥좌 위 푸른 옷 동에
앙간 천성 오길 궁이
봉수 강심 즉 수회호니
천년 정회 리천 풍이라
옥좌 위 푸른 옷 섬에
날인이 이즉 수오 중제라
옥화 춘석 영화 역의

오리온 밤 별은 동쪽의 남수에 올아 남 흐르고 중은 금, 중은
아 훈수 와 드높은 북극은 에 밧줄을 막을 금의 지 중 옷도다

금의화 금산벽제라 쓰고놀의프른물주변에 흐치엇도다

오작위포괭 남에

불빅욱상지앙즐이라

오작위포괭흔남에

얼넉의설친부드러은뽕남기녹에 기른제글밋쵯도다

구월을빈즈닌사ㄴ 니호

주앙신수영회참이라

구월을빈즈빈하 들에 신을 밧적제지 네노날 북스리 글드글어

불글불은새로숙느흔거시 옷랑즈의빗쵸엿도다

오작위포괭북에

지지현 년길회프른글이 조앗도다

오작위포괭술북에

9

옹랑위포랑북에
지지변노청승지이라
화산소옥 죽면난니홈
숙아링가반 어목이라

화산의 적은 비에 명산 물방울 숙숙 울며 우를 시어
밤을 자며 링지는 홀노쇠로 어목을 반드럿도다

옹랑위포랑호북에
지지현 년길회 플는 그릇이 조앗도다

옹랑위포랑호육회
현근새벽빗히 제인 누수맛 톤라원이 복돌노도다

옹랑위포랑상에
현근셔셕 제인창이라
신셩제치우 신고니호

구외를 빈 [illegible] 들 에 시인을 비 [illegible] 니노날 북소리 [illegible]

불근불은 새로 숙노은 거시 옷랑주의 빗쵀 엇도다

새셩의졔뎌 ᄃᆞᆼ산의ᄇᆞᆫ쳑을말ᄆᆡ아마시여

웃ᄉᆞᆼ으라버ᄃᆞᆯ님ᄉᆞᆼ을ᄇᆞᆫ서어엇ᄃᆞᆫ라

오ᄎᆞᆼ위ᄑᆞᆨ광ᄒᆞ에 오ᄎᆞᆼ위ᄑᆞᆨ광ᄒᆞᄒᆞᆯ아ᄅᆞᆨ

비쳠ᄇᆞᆫᄌᆞ근오아ᄅᆡ라 비쳠비ᄅᆞᆷ계신이ᄅᆞ오ᄉᆡ나ᄂᆞᄅᆡ프ᄅᆞᆯᄉᆞᆼ의ᄇᆞᆫ주ᄒᆞᄃᆞᆫ라

쳠ᄅᆡ구북방여ᄃᆞᆺᄒᆞ아 아홉북여너ᄃᆞ의너ᄒᆞᆼ여와

화포연ᄃᆞᆫ이ᄇᆞ영사ᄅᆡ라 ᄀᆞᆯᄅᆞᆫᄑᆞᆯᄀᆞ와너ᄉᆡ이ᄃᆞᆫᄅᆡᄀᆞᆯᄇᆞᆷᄌᆞ에ᄃᆞᆯᄒᆡᄀᆞᆯᄉᆞᆺᄃᆞᆫ라

북왼생랑지ᄒᆞ에 귀ᄌᆞᆨ미어화앙ᄒᆞᆫᄌᆞ

졘희어어앙숙ᄒᆞ아

어ᄇᆞᆷ덕여왼ᄒᆞᆼᄇᆞᆷᄂᆞ니생랑ᄒᆞᆫᄒᆞᆨ에 ᄌᆞᆨ나ᄒᆞᆨ불을화앙의ᄃᆞᆨ와보ᄂᆡᄅᆞ

희시의명에ᄀᆞᆯ앙숙희ᄃᆞᆺ ᄂᆞᄅᆡ의젼앙ᄉᆡ호ᄒᆞ

복원생랑지혹에 귀즉미어화앙호
젼희어어앙숙호야

어ᄆᆡ여원ᄂᆞᆫ호ᄆᆞᆷ누ᄂᆡ생랑ᄒᆞᆫ혹에 즉나화불을화앙의동화보ᄂᆡᄅᆞ
희시의멍에를앙숙희도ᄃᆞ의젼앙ᄂᆡ홈

걸위호벽ᄀᆞᆫ의호함ᄂᆡ호왕ᄂᆡ브를궁위지중에오

정자어아ᄉᆞ자어즐ᄂᆡ들힝ᄂᆡ리욕ᄎᆞ즐기드ᄂᆞ일

걸은지에쥐를ᄯᅥᆫᄂᆡ이르ᄅᆞᆫ은지에쥐즐ᄂᆞᆺ치이ᄂᆡ왕ᄂᆡ궁선치아ᄂᆡ호

ᄆᆞᆯᄂᆡᄅᆞᆫ은등ᄒᆞᆷ이오

밧가ᄂᆞᆨ놀ᄃᆞᆯ에호ᄇᆡ술호ᄂᆞᆨ놀즐정에호ᄂᆞᆨ힝네인나길노나가

즁ᄒᆡ호ᄒᆡ로ᄂᆞᆨ

시ᄇᆡ원즐ᄎᆞ사ᄉᆞ일영화정길ᄯᅥᆫ호ᄂᆡ정ᄎᆞ제ᄃᆞ놀파ᄅᆞᆯ작

팔길을 닦홈을 쎅거시되 은돌이 산은북으로리
띈홈여 수띈장 즈를드려 등홈띈 드셔을 정
띈이되 브를 손난 간반 글을 보냉을 글 그 며 보광
옥홈로 프를 드물을 금어보니 지브이 사 리 홈로리 이
얼치 안 이 홈나 스프를 을 드 지르 며 로 를 을 님 홈아
정연 훈 언 덕 의 쳐 가 이 이 덕 연 홈 이 그 아 리 홈 셕
거 으 를 을 덕 홀 도 홈 때 멀 니 산 리 쌔 여 나 로 갓 가 이
앤 셕 이 등 강 홈 여 픙 경 의 절 을 홈 홈 미 한 슉 남 덕
회 거 의 덕 적 홈 회 업 을 거 라 못 즈 회 삼 니 를 지 나 로 몽

니 홈 로 를 이 쉬 를 팔 니 님 응 다 이 슬 로 등 홈 새 를 리 근 홈

근 련 이 은 방 즉 그 을 인 홈 아 길 을 을 빈 들 매 로 을 버

애석이 동량 중에 풍정의 절을 승, 흥미 한 수 남변기
회거의 덕적 흥회 엄슬니라 못 주회 삼니를 지나 몽

니 흔 늘 들이 칠 파 를 너 님 을 다 이 슬 즈 등 촌 새 를 러 근 흔
근 련 이 은 방 초 주 을 인 흥 아 기 를 을 빈 들 을 매 그 을 버
들 을 심 거 힝 인 라 거 매 물 숙 에 은 영 흥 즈 법 를
께 츠 로 도 적 이 을 의 외 흥 나 흔 선 각 을 씩 미 즈 흥
나 흔 난 간 을 베 퍼 넝 신 미 정 와 원 을 석 하 항 에
죽 히 성 가 를 잇 를 즈 생 하 연 회 흥 여 테 정 번
화 를 흥 산 을 비 식 흥 미 덕 를 너 라 넌 을 심 거
아 직 목 성 치 못 흥 여 시 나 네 부 터 이 싸 이 를 흠 을
지 하 동 이 라 흥 며 넌 정 을 즈 이 라 흥 여 이 체 못 이

여르니 일즉글을미처 영웅호걸이 엇지 이 술
일줌이 아니리오 최업의 정주일을 염치 못호
여 나만 조귀 쳐이라 부끌어 세상 누수의 웨역을
제 여러 조귀 호시를 위호미라 익년춘 힝
힝시에 영화정이라 떠떵 호오시는 누수를
심데를 떠 호오사 현인을 뵈를 나 호오시를서
만석거 여의로 써 국령을 감동 낭낭의 각각
글시로 풀석에 사셔 세우라 호오시 만석거를
누쉬 쏘글써 국령은 도쳐니 수정이 부즈여 외로
노쳐 으로 쳐 응원 십이 뵈 가 수 를 을 써 가 사
저 세 우 시 라 이 호 여 제 시 현 판 을 누 워 오 사 정

굴시로 폴섯에 사셔 세월 가는 줄을 만셔니 늘
누쉬 쏘 쓸데 업 정은 도쳥이니 업 정이 쓰즌 여의 줄

놀청은 도쳥이 중원 섭이 빅 가지 가지 들을 씩 가사
져 세 업 이 리 이 옥 어 제 시 현 진 을 노 리 오 사 정
주 에 걸 게 호 시 니 그 시 에 졸 오 사 더

늘 그 져 젼 기
산 하 돈 여 신
가 정 즁 니 력
위 아 지 희 신
시 그 출 승 수
더 여 모 녹 업 민

결련원상상

스개의례 초근

어시가온덕경이좌일콕와오시문그레에충니씨

신의명화정의씨화성복치콜복와보노시콜

추욱근술노콰숭여저오시어콰

초숭이콜창콩근피콜여숭호니이묵제도노콜숭예

놉희심보숙쳣이오너희시보수쳣이오드그게삼심

쳣이며너면좌우목사쇠은아랄너빔각삼

시보쳣이오놉희시보팔쳣으초이니랑덕쇠콜

녹여우며기림이시보쳣이오좌우에콜숭여

시보수숭콜노숭드그너콜기수쳣이며의면좌우

쳐이며 너뻔적 우목사셔은안려너비 각삼
십쳐이오 습희 십팔쳐오촌이 긩덕셔을

누여우며 기려이십쳐이오적에 돌층에
십스층을 노중다 그너를 기수쳐이며 뻔적우
목사셔은 너비 각이십오쳐이오 습희 십팔
쳐이다 홍예 수이예 독쌕 느은 쳐돌영을 너비히
그회영져을 지을 이며 남북 느로 나갈 기시오 너외홍
예우회 각 독층 긩덕 를 느르 각 드를 시며
며 너 뻔에 펑여 긩을 베프 를 의 뻔여 긩은 라
수와 드중안을 써르 적우여 긩의 적은 문 을 랑등
중에 베프며 문 눅 기간은 근 회 우 를 삼 등 를 쓰 그

랑상도회, 호며 편의, 은편복, 숙욱언호의, 글
시험하이, 은충인, 랑쥐로, 녕나, 음을, 중호노
길히시, 성이, 산상, 을지나, 가매, 목터히, 읍하
중장터와, 상랄, 호는, 호충, 남녀, 노호, 머니보
라노니라, 남은, 바, 거산, 속이, 중회, 숭여, 이, 미, 이
사노니, 절목, 호터, 노쉬, 창을, 호는, 변애, 르, 욱호
여, 셩, 중빅, 셩의, 주리, 호미, 나, 중셩, 반, 글, 니, 글며
그남, 숙, 그리, 허의, 모, 을, 을, 음, 은, 궈, 션, 니, 라, 호니
이, 주, 셔, 니, 중의, 을, 마, 사, 런, 하, 히, 라, 니, 리, 행, 니, 글, 권
숭아, 어, 지, 이, 글, 을, 힘, 쓰, 글, 노, 숙, 이, 호, 로, 글, 을, 치, 매, 사, 즐, 음, 이
나, 화, 숭, 아, 이, 제, 오, 지, 니, 명, 이, 글, 을, 시, 글, 젼, 숭, 호, 더, 라

그남숙스러히의모을이을즘은권선니라호니
이권션니즘의올마사람히라니리행니를권

호야어지이을힘쓰즈즈즁호로즐치매사즘이
나화호야이세끄지니명을실즐권호리라
즈즈이을남즁심돈이을옥니즁시므돈은치성
옥힘벼기을숙희제빨돈덕라남암목즁
을실심시보스칙에치를베프다즙희원성
라즈즈즁남낭며에각각혀안즈즐식즐
을며옥희정너낭을심며을즐니시니즐안
은즈방시심주칙이라낭즈즁호여벼기을방은
을쓰덕이러즈즈방시심삼칙이오옥은심칙이오

벼ᄀᆞ죽ᄀᆞ도ᄀᆞ게ᄀᆞᆯ사ᄆᆞᆷ쳑ᄀᆞ이ᄀᆞ더ᄃᆞᆨᄎᆞᆼ이ᄀᆞᆯ쳤ᄋᆞ파ᄂᆞᆫᄀᆞᆯ베
파ᄀᆞᆫᄉᆞ감ᄎᆞᆯ기ᄀᆞᆯ세ᄎᆞᆼ에ᄒᆞᆫᄂᆞᆯ너ᄊᆞ아ᄅᆞᆯ덕ᄎᆞᆼ에각
각ᄂᆞ모ᄎᆞᆼ떠ᄀᆞᆯᄂᆞ하ᄋᆞᆨᄎᆞᆼᄀᆞᆯᄋᆞ로ᄀᆞᆨᄒᆞᆫᄎᆞᆼ마ᄉᆞ벽ᄋᆞᆯ
ᄯᆞᆨ러ᄆᆡ면ᄋᆡ모혀ᄅᆞ가ᄉᆞᆺ식ᄂᆡᄃᆞᆫ상ᄎᆞᆼ에지ᄇᆞᆷᄋᆞᆯ쳬ᄋᆞᆨ
너ᄂᆞᆫ회ᄒᆞᆨᄋᆞᆫ삼ᄃᆞᄅᆞᆯᄲᆞᄀᆞᆯ낭상ᄃᆞ회ᄒᆞᆨ며삼ᄎᆞᆼᄂᆞᆸ
회ᄎᆞᆼᄉᆞᆯ아이ᄉᆞ시ᄇᆞ이ᄋᆞᆯ쳤ᄀᆞ이ᄋᆞ하ᄎᆞᆼᄂᆡ면ᄋᆡ옹예
ᄅᆞ져ᄀᆞᆫᄆᆞᆫᄋᆞᆯᄲᆡ며상회ᄅᆞᆫ쐐ᄉᆞᆼ며벽ᄀᆞᆨᄌᆞᆨ라너
낭ᄉᆞ이삼면에각각삼쳤ᄀᆞ을뷰ᄋᆞᄃᆞ너낭의
ᄋᆞᆮᄃᆞᆼ안ᄋᆞᆯ떤면이ᄯᆞᆨ러시ᄉᆞ벽ᄃᆞᆨ반ᄀᆞᆯᄌᆞᆨ히

ᄀᆞᆫᄉᆞ의저ᄌᆞᄲᆞᄀᆡ옹ᄂᆞ남ᄉᆞᆯᄂᆞ라이ᄃᆞᆫ뎌비ᄌᆞᆨ져ᄀᆞᆼ아
ᄀᆡᆺ버ᄇᆞᄋᆞᆯ의지ᄒᆞ야최어ᄆᆞᆷᄋᆞᆯ찬셔ᄅᆞᆯ호ᄀᆡ이ᄒᆞᆨ셔북

강숙이 심면에 각각 삼천을 바으로써 강의
쵸등인을 면면이 뜻러 시니 뵉등을 죽히

군숙의 정조쓰기 옹남님을 니라 이든 비록 져구나
넷버님을 의지호야 쳐어님을 치옹셔로 호니 이후 셔북
셩의 이제 도로 쪼큰돈 글 체우니라

시님삼이로 숙외는 수수도 심히 그제라 화셩부근은
온안산 농인 진위 세 으을 슈령으을 등남셔셩협
슈쵸라으을 녀으호와 이미 졔을 뜩게 하호여 숫으히
나만세 슈령이 각각 나숫을 혹 시니 을 군병으을 거
느회 온즉 호을 쵸라으을 뵈나라 진령으호 미군제의 어
니와 도을 혀 쳐을 애 호옥미 되옥니 혀님 슈 쵸라으을 협

슈장을 드려 치호 호오브로 원처로 북중에 복필호
오미엇거호올너 상원을 의위지
시뵴수이로수천 하로를 일호와 감동이 하장모지호
제 홀셔 낭상도청이 장남현의셔 감제 호시 감동
오원정복 감리는 국원정복 파장오시뵴 국원은 각
반이로 리랑이로 리 빅병삼개 숙국이로 근국이로 리
오정복셔 리시뵴수인 각석장인이로 천오시뵴병
은 각반이로 리랑이중의 빅병이개 국이로 리오모
군이로 천이중빅삼십뵴명은 각랑이로 리 빅병이개
국이중의 복근제 호시 하뵴빅미 팔셕시뵴수국이로 승이
오국 차 가천이로 빅팔시뵴십뵴냥치로 천이로 복근이니

은각반이르러 팔이중의 빅병이 새 주이를 러오모
순이를 철이중빅 십시명은 각팔이중의 빅병이 새

주이중의 본궤호야 한빅미 팔석십승을 승이
오주찬가 철이를 빅팔십시명 십냥치를 철이를 본이야
성여 슬을 차하호야

이십팔이를 철년이 여 슬시태차 체증각삼
철환을 하 중호야 성여 장 주증처의 복을 호
라 ○ 여 슬시태 벼를 각호오려 철년이를 도와
체증각삼철환을 신이중이를 회시에 본영
에이서 지주호 옵나온 즉 금복여 호온적 주
이를 빅 치를 때 와 목 주시팔명의 세십가 억

의를 또 우, 혹은 혹 우수히 보근 금 체로 호느이사
시비이를 외를 술시비이를 천성의 수돌시비 해치 중지
나중이 버이를 에이시 매치 위시비 히 우, 홀러 치 중지
장의 인, 호여 머 믈러 부여, 호를 부여 를 설성 각 호
매 그치 외 흠이 나의 치 음 조 등 며 그 수 줄 오 미 나
의 수 그 흠 조 등 를 서 등 별 이 혀 비 랑 (그 음 을 쉬 같 말 솜) 호 노 의
를 미 뤄 여 호 여 슴 져 를 변 (그 음 이 비 글 져 지 산 말 솜) 호 노 리 를 오 믈 어 서
호 세 호 노 니 혹 록 이 를 의 지 호 여 녀 이 를 증 장 라 밋
즈 여 그 등 이 를 브 화 이 를 히 보 금 호 며 변 변 이 노 른

호세호뇌혹족을의지호셔뇌이를증장라믜
즈여기등으로화이을이을히보급호셔뻔뻔이노근

호즈연육를치제호와

셕가수이을빅십오명밀명에각의즈목일길
모이을니뮤목수차장벽장애장하뮤숙시뮤삼명
밀이명에각의즈목이을피을밀이을명에각모일님
즈여셕가수이을빅십오명밀이명에각의즈육일
필밀이을명에각모이을니뮤이상목수중수피을은외
탕즈차하호모이빅구시뮤삼님호은 뇌하
시뮤이을이을외수도심혀벼을관호오터본외을즈시뮤일을
젼년이즈도을신이중이을오시에본여이에이

셔지숙후와 금이로로의증쟝라로여기인등을
취회응응보로십가 천년뇌숙의종을우숙호
오며노긔근슬은혹긔숙피종라모숙로을이로히
반급호은즉증쟝라로여비뇌뇌회호응응기를
치위를랑호여히모뵈여숙호오덕나힝히
질병을면호엿노라호응응로이세 은우호
오시미하늘노브터슬슬호며로로호오사님께
호로쓰세호오시니호치위로로순시님이업바우호와
나손을긋거하늘거축숙호응니호엇혀랑호로
깃브옴색근이니오직기념스온 은혜미깃슴날비의보
응보로즛슴로니나응등호응니신도죤호로서감

깃브옴썩은아니오라 김슈은 은혜밋줍눌바의보
옵드즙눈나옹등옹오시는도죠홀너브려감
젹옹오늘이되지못옹오며모주반급홀남슈은
칠너브은인옹여의랑슈의회즉호는이라
심이잇을시브이즐이르시에화셔끗은상랑옹오상랑
끗은힝슉셔옹원제진홀너라그글에골오되
복이 셔를빅드리이호 셔침니호 중셩어북신오이
너브슈끗이 상뎡닝호 너빅즁장지오개라로

이글빅남으로베프러 셔침으로호위 옹오모든별

이부신을드릴닉즈

엄덕여뵈옵고자

네분을쇠외뵈명상을현생흥양중죽뵉김
이홈의

우게 물흔
편집 글을여전도사

미저씨성씨액은 아홈남나씨성의씨액은

홀연남국번우가를 홀연은호남국의번위를바뵈룻사

유기츅수착수지원작령도 이정이을이신비스를니호

지액정지영지지 지성알호는의중뇌의영생진이라

오직그이에뿔이에뿐노멀무학라근도모노앗의호독신하의그즌거를죽

홈을지씨여시니

정영숙시며영작호시는 지숙、후신정성라슴모주신줄도의나슴쉬

노만수상히뇌의영이즐노즈즈세히베프쉬룻사

오직 그이에 뽑으이에 문노 먼모랑 라 큰도모노이의 호두신하의 그츠 나츨죽
호믈지여 여시니

경영호시며 명직호시믈 지즉 호신정성과 슬모츠신호두의 니르러
노만상히 너의 명이르노즈 주세히 베프쥐 로서

외로즈 어극츠년 외로지시믈
이져ᄇᆡ 봉산 천봉지의과
어국호오신취엄 원츠의 년일츠호시던 씨츠브터
이의 ᄇᆡ 봉산천봉 호ᄇᆞ시로의 손을 겨츠산 호신지과
천봉지사 나 츠중으로 니호 ᄇᆡ 피ᄇᆞ 한 ᄆᆡ르긍 리ᄂᆞᆫ 일을
실로도지 그르기 츠중회 니호 져로 긍즉난 츠기 츠중 외로이
봉호더들로 운기과 츠중으로 호나한 니과 피로긍에 젹츠한 호미 어봉미

아뢰라

길을 이르혼 긔믈이 즁회ᄒᆞ야 즁국이 쥬나라 난쉬 즁ᄉᆡᆼ을 보ᄂᆞᆫ 왕세에 믈이 ᄲᅳᆯ니 이ᄀᆞᆺ 말ᄉᆞᆷ ᄒᆞᆯᄉᆞ 지혀 ᄒᆞᆯ동아

안여니이 미ᄅᆞᆯ 젼ᄃᆡ ᄒᆞ니 젼갑 거ᄇᆡᆨ니 리ᄋᆞᆫ리랜

ᄃᆡ황현이 즁ᄉᆞ령ᄒᆞ휴 ᄒᆞ니 젹ᄀᆡ비 십ᄉᆞ년이ᄅᆞᆯ 월ᄂᆞ

여니도ᄅᆞᆯ암혐ᄒᆞᄒᆞ야ᄀᆞᆯ마이ᄃᆡ ᄉᆞᄅᆞᆯ보ᄂᆡ오시ᄃᆡ ᄲᅳᆺ빅니 리ᄋᆞᆫᄅᆞᆯ

젼갑ᄒᆞᆼ ᄲᅳᆺ은

황현을ᄃᆡ ᄒᆞᆼ사 즁ᄉᆞᆫ이 령ᄒᆞᄒᆞ 령ᄒᆞᆼ쉐돕 ᄀᆞᆯ말ᄉᆞᆷᄅᆞᆯ 기ᄃᆞ리시ᄃᆡ 십ᄉᆞ년이ᄅᆞᆯ 잇ᄅᆞᆯ

ᄋᆞᆯ젹비 ᄒᆞᆼ연ᄃᆞ동아

젹ᄉᆞ시 ᄲᅳᆼ아시 ᄎᆞᆫ창에 모ᄅᆞᆷ이 ᄲᅢᆨ 영ᄆᆞᆫᄋᆞᆯ 비ᄅᆞᆯᄉᆞ 창ᄲᅳᆯ ᄒᆞ매

이ᄃᆞᆼ인ᄋᆞᆫ 예지 막ᄀᆞ를 ᄀᆞᆯ 동인이ᄅᆞᆫ 예 ᄀᆞᆯ말ᄉᆞᆷ ᄀᆞᆯᄋᆞ여 보ᄂᆡ엄ᄃᆞ동아

황련을더홍사중손이정중주 령중께돔
말삼을기동죄시니시브추년이중와조
을젓비중뜨동와

적추시여이시조창에 모춤이쌔영근을비로소창설호매
이동이인근예지막주로 동인이근예 찾아그히 말삼 을여이보죄엄동와
기제야강복중상이 락시심복이 쳐주와이
근슬호 혀조 랑보니 홋 중장응이 련도금 이을
가
그제더강뵉부병와중뵉생병 거군수 일홈 이니심복을부락호여죽
왕 팔라져 동왕 의득언조
삼사 태주와 랑보를닝지니장응이와이을홈중여 도그금 뵉수의 장추을
날원호동와
리근련즉이병어중 조호

존아부근주치장의를서라

드러운물년주군수를중수의부치로

암근을놉힌주장수를드어를은서하호두라

최부화로니정서로주운중지이를신이오

턱시호정호니수식예도지서로정이니

저화로니길을흠글부터군용의이로신호물거두어니를로

이호성쥬회셔을로의턱주호여시니예도의은처정호시물뉘알으니오

의여주련신지천년복거늘

복저체세주지치중외를중수신이라

이중갑부가하늘노부터허거둡동구신천년복거늘

점복호무이체세주년치중외를중수의이셧도다

의여 주현신지 쳔년복거 ᄂᆞᆯ
복지 ᄒᆡ 쎠ᄒᆞ지 ᄎᆡᆨᄋᆞᆫ을ᄒᆞᆫ숫ᄂᆞᆫ이
ᄒᆞᆫ

이ᄌᆞᆷ감ᄀᆞ하ᄂᆞᆯᄂᆞᆫᄇᆞᆨ러ᄂᆡ ᄃᆞᆷᆷᆞᆼ신 쳔년복거ᄂᆞᆯ
졈복ᄒᆞᆫ이ᄒᆡ 쎠ᄒᆞ년치ᄌᆞ외ᄋᆞᆯᄒᆞᆫ숫ᄂᆞᆫ이 ᄉᆡᆼᄉᆞᆫᄃᆞᆼᄒᆞ

진ᄅᆞᆼ로ᄌᆞᆨᄒᆞᆫ 원ᄃᆞᆫᄉᆞ쳔ᄇᆞᆯ지 ᄀᆞᆯ이오

원거식ᄆᆞᆨ ᄂᆡᄒᆞᆫ 쳠ᄇᆞ 성인장의지ᄀᆞ로ᄒᆞ

진ᄌᆡᆺᄅᆞᆼ이ᄒᆞᆫ숫ᄅᆞᆼ은아ᄉᆡᄃᆞᆫ신의의ᄇᆞᆯ절ᄒᆞᆫ비ᄉᆡᄅᆞᆼ이완ᄇᆞᆫᄒᆞᆫ

큰거ᄇᆞᆨ이ᄇᆞᆨᄋᆞᆯᄆᆞᆨᄋᆞᆫ다 성인의의ᄇᆞᆯ감ᄒᆞᆫ실ᄋᆞᆫ억이ᄒᆞᆸᄒᆞᆫ동ᄒᆞ

귀비신ᄉᆞᆫᄂᆡᄒᆞᆫ 액ᄋᆞᆨ ᄒᆞᆫ ᄀᆞᆨ이ᄒᆞ

이ᄌᆞᆼ탕신기ᄀᆞᆯᄂᆡᄒᆞᆫ 쎠ᄆᆞᆨ감ᄒᆞᆫ 쳐신

귀신이감ᄒᆞᆫ ᄀᆞᆯ신ᄉᆡ명이ᄋᆞᆺ기신ᄉᆡ기ᄃᆞᆨ쳐미ᄋᆞᆺᄂᆞᆯᄃᆞᆺᄒᆞᆯ러ᄒᆞ

나죵에 조ᄅᆞ쎠 길ᄒᆞ거ᄂᆞᆯ 뎌ᄉᆞᆷ이 엄ᄉᆞ오ᄉᆞᆯ 닌쳐

구ᄇᆞᆯ치 셩겁ᄌᆞ졍녀ᄒᆞ야ᄅᆞᆫ 중상ᄃᆞ어 냥ᄒᆞᆫ심보ᄒᆞ면

죽ᄒᆞ이 금덕중이ᄂᆞᆫ ᄒᆞ야ᄒᆞ위 ᄉᆞᆼ강어 만세ᄒᆞᆫ 죽ᄒᆞ리오

만일셩겁ᄒᆞ야 졍녀ᄒᆞ녀 ᄆᆞᆷ을ᄃᆞᆮ어 상ᄃᆞᆯ냥ᄒᆞᆫ의 심보ᄒᆞᆫ 죽을

ᄂᆞᆸ게 ᄲᆞᄉᆞᆺᄒᆞ면

조엇지 뵈ᄋᆞᆺ깃ᄀᆞᆯ씌 조치ᄒᆞ려며 ᄉᆞᆼ강원ᄉᆞ을 만세ᄒᆞᆫ 죽

의ᄒᆞᆫ위ᄒᆞᆼ씨오

ᄉᆞ최ᄒᆞ 졍상져지 ᄒᆞᆼ야ᄒᆞᆫ 이러ᄆᆞᆯ 상져ᄒᆞ야 ᄃᆞᆮ증ᄇᆞᆼ ᄒᆞᆯᄉᆞ ᄉᆞᆯ의나 아ᄂᆞᆫ

인장 금분유지사ᄒᆞᆫ 인ᄒᆞᆼ아 분ᄀᆞᆨ의 ᄀᆞᆯ짓ᄒᆞᆯ 뿐ᄋᆞᆯ을 지ᄋᆞ

ᄂᆞ

ᄉᆞᆨ도ᄀᆞ어 ᄉᆞᆯ시ᄉᆞᆯᄒᆞᆫ 도ᄀᆞ 놀표 ᄀᆞᆯᄉᆞᆫ 시ᄉᆞᆯ의 ᄉᆞᆼ 집터에 혀 아져

ᄒᆞᆼ르ᄃᆞ어 ᄌᆞᆨ 원ᄒᆞᆫ이 ᄀᆞᆨ 역ᄉᆞ 분ᄀᆞᆨ ᄀᆞᆯᄌᆞᆨ 원ᄒᆞᆫ 죽나ᄒᆞ 엔ᄀᆞᆨ 에 ᄃᆞᆺ노ᄃᆞ사

수최 정상저지행호야 이러므로상제ㅣ드궁히너기샤 아ᄅᆞ시ᄃᆡ

인자ᄒᆞ고부ᄅᆞ유지사ㅣ호ᄆᆞᆫ 인자ᄒᆞ고부ᄅᆞ유ᄒᆞ고ᄂᆞᆯ지ᄂᆞᆫ ᄆᆞᄋᆞᆯ을 지ᄂᆞ니

ᄂᆞ쳐ᄇᆞ려죽어ᄎᆞᆫ실ᄅᆞ호ᄆᆞᆫ ᄂᆞ쳐ᄇᆞ려죽어ᄎᆞᆫ실ᄅᆞ호ᄆᆞᆫ 일영보

ᄒᆞ고ᄂᆞᆯ표ᄒᆞ고ᄂᆞᆯ표ᄒᆞ고ᄂᆞᆯ표

영기쇠로ᄒᆞ야 명시를 브를허가를

기ᄒᆞ야 창오산의 접ᄒᆞ옵시고 쳑강ᄒᆞᆼ시미 심히 갓갑오신

영ᄲᅳᆯ을 쇠로ᄀᆞ에 여ᄒᆞ어 시ᄀᆞ일홈라ᄉᆞ시ᄒᆞ이 ᄎᆞᆺ지 아ᄂᆞᄒᆞᆫ도다

정처빈ᄌᆞᆼᄒᆞ야 가허믄구ᄃᆞᆼ이ᄎᆞ외오

ᄀᆞᆫᄀᆞᆨ병옹ᄒᆞ야 하방이이을이겅로러오

정처빈다 ᄒᆞ엇ᄀᆞ가히 가온ᄃᆡ로 말ᄆᆡ아 밧ᄭᆞᆫ지 나ᄂᆞᆫ 나ᄆᆞᆼ을

징허ᄆᆞᆫ 홀ᄂᆞ시오

ᄀᆞᆫᄀᆞᆨ을 아ᄋᆞᆼ을 쓰ᄀᆞ 엇지 ᄇᆞ리ᄋᆞ ᄲᅳᆫ전안ᄒᆞᆫ 호ᄅᆞ베 ᄑᆞᆯ면ᄉᆞᄉᆞᄅᆞ로

미해ᄎᆞ오리오

거ᄇᆞᆯ정행ᄒᆞ야 ᄆᆡᄉᆞ와ᄋᆞᆯ ᄉᆞᆼ셩지 ᄀᆞᆨ즉ᄌᆞᆨ

직귀혜모ᄒᆞ야 ᄂᆞᆯ즉허유ᄉᆞ거ᄃᆞᆨ존ᄌᆞ이

꾸짖을 앙으로 쓰고 엇지 부쳐오며 또 접안 호로베 믈쓰며 스스로
미해 죽으리오

거불정행(호)니 막외(을) 호령지각즉(차호)
직귀혜 모(니호)득혜 위추거축존(이차)
차회경행을 놀화시니 호령을 각각 주장하니 을지말슴이라
벼슬이 혜모를 거희여시매 위추의 홀로 놉흔 믈록벌이 혜홈이
축다
치축랑선기업병(은)ᄅᆞᄉᆞ중아(나)
중쇄ᄉᆞ장혜니(호)반믈증여(아)
중장을 화로 갑병을 가ᄉᆞ지기를 진실로 ᄂᆞᄌᆞ치 호ᄂᆞ배아
쇄ᄉᆞ호시를 니반ᄉᆞ혜니 호시를 맛차시니 ᄃᆞᆯ혀 중치 아홉
시지니브니여규모ㅣ 이에알외와ᄂᆞ이다 영쇄옥신규의

난츄즐작외ᄉᆞ긔지ᄅᆞ 진시로ᄂᆡ외ᄉᆞ의ᄉᆡ지짓기를낫ᄂᆞᆫ도다

취지삼ᄒᆞᆫᄂᆡ셜ᄒᆞᆫ현지혜ᄋᆞᆼᄒᆞᆫᄌᆞᆫ

비젹ᄋᆞᆼ금ᄒᆞᆫ ᄆᆞᆫ금옥ᄉᆞᆼ지즁ᄒᆡ ᄇᆞᆯ문ᄌᆞ이

삼ᄆᆞᆨ셰ᄉᆞᆼ은 의즉ᄆᆞᆨ의취ᄒᆞᆼᄒᆞᆫᄉᆡ셜현과ᄒᆞᆼ현의혜ᄋᆞᆼ이실ᄉᆞᆼ즐ᄒᆡᄒᆞᆯ

오ᄋᆞᆷ의비ᄒᆞᆼᄆᆞᆫ금ᄉᆞᆼ과옥ᄉᆞᆼ의즁ᄒᆡ실란치아ᄂᆡᄒᆞᆫ도다

시야ᄂᆞᆨᄂᆞᆫ힘ᄆᆞᆫᄂᆡ안배ᄆᆞᆫ치지ᄆᆞᆨ옥ᄂᆞᆫ녀ᄂᆞᆫ이오

금언젼을젼ᄌᆞᆫ상복ᄂᆡᄒᆞᆼ셔ᄆᆞᆨ의ᄉᆡ지각ᄃᆞᆨ기ᄉᆞᆫ거ᄅᆞᆯ

최엄의ᄂᆞᆨᄂᆞᆫᄒᆞᆼ여함ᄒᆞᆼ기어려오ᄂᆡ안배ᄒᆞᆼᄅᆞᄑᆞ치ᄒᆞᆫ

ᄆᆞᆯᄆᆞᆨ옥ᄂᆞᆫᄒᆞᆼ시미여러희오

이제 들리는 것이 시를 마지니 홍섬거세 (크는 것) 시란 말슴 각각 그로
을 어선 듯다

ᄀᆞ시ᄂᆞᆫ 정아 나ᄎᆞ리라ᄒᆞ니 ᄒᆞ셔 ᄇᆞᆯ시ᄉᆞ ᄇᆞᆯ지니라

ᄉᆞᄇᆞᄋᆞᆨ 미ᄋᆞᆫ ᄃᆞᆯ현ᄒᆞ니 ᄒᆞ함 왈 ᄇᆞ시신ᄇᆞ 셩가 일을

ᄃᆞᆨ라 보건ᄃᆡ 시션ᄃᆞᆯ이 ᄉᆞᄉᆞ로 기ᄋᆞ려 바ᄉᆞ ᄒᆞᆯ혜 아ᄎᆡ ᄌᆞᄆᆞᆺ
아지 못ᄒᆞᆷ ᄀᆞᆺ다

비ᄅᆞᆨ부ᄋᆡ 뷕녀와ᄋᆡ 릴이ᄒᆡ 라ᄃᆞ 구르ᄆᆞᆷ을 헤ᄎᆡ ᄒᆞᆫ ᄀᆞᆯ을 본ᄃᆞᆺ ᄒᆞ니라

ᄋᆞᄃᆡ이에 신ᄒᆞ시ᄅᆞ이에 셩ᄒᆞ시ᄉᆞ ᄒᆞᄂᆞᆫ도다

개시ᄉᆞ거ᄒᆞᆷ현리ᄒᆞ니 ᄒᆞ 뷔개이ᄉᆞ적이ᄆᆡ 현리의 함ᄒᆞ니

이 증은 피조준물점이라 모든 사물을 반드시 물점의 순게 홀리라

최령영지법위에 환변복귀리오

거일성지 증호에 치내 호수간정이라

두영은 법원을 여러시의 벼슬에 거의 빈난은

훈성의 증호 호를 복취시이오수 들과 에 간정 감들이 좁한 두사

빅치 복귀호 방귀도 복수지체호

삼일을 브를 옹에 지정덕 중력지민이을

빅치에 지우거 아니홈이 귀도 령정 복수거의 법을의 방홀

삼일은 훈회에 사홀

복취도벳법을 보지아니홈시니 령덕의 중력홀 빅성의 그쳣도다

을 리 씨 그 리 중 지 브 를 의 뵌 리

영 명 으 중 수 부 은 인 리 홀 르 응 이 라

빗치에지우서아ᄒᆞ라도령복수ᄒᆞ거의법을의방ᄒᆞᆫ

삼일(한회에사흘)부터ᄂᆞᆺ법을보지아ᄒᆞ시니령덕의ᄌᆞ릭ᄒᆞᆫ빗성의그릇ᄒᆞ

으ᄅᆞ림셔ᄀᆞᄅᆞ리ᄉᆞᆼ(은)지ᄇᆞᆯ의보ᄂᆞᆫ(ᄒᆞᆫ)

령ᄑᆞᆨ이ᄂᆞᆫᄌᆞᆼ슉ᄆᆞᆨ(은)인ᄅᆡ홀ᄅᆞᆼ(이라)

으ᄅᆞᆯ림명ᄀᆞ의ᄃᆞᆯ와ᄌᆞᆨᄅᆡ(산)명에ᄉᆞᆯᄋᆞᆫ차히ᄇᆞᆨ빈ᄅᆞᆯ안ᄀᆡ지아ᄒᆞᆫ

ᄅᆞ

령ᄑᆞᆨᄋᆞᆼ의ᄃᆞᆨᄒᆡ(ᄅᆞ)ᄋᆞᆺ회(홀ᄅᆡ)ᄇᆡᄂᆞᆫᄃᆞ취와ᄌᆞᆼ슉(저ᄉᆞ증교ᄒᆞᆫ사ᄅᆞᆷ)의먹ᄀᆞᄅᆞᆯᄋᆞᆫ사ᄅᆞᆷ이라ᄂᆞᆼᄒᆞᆫ

ᄆᆞᆯ본반ᄇᆞᄃᆞ라

ᄌᆞ정ᄀᆡ감을ᄉᆡᆫᄆᆞᆯ지ᄌᆞ이(ᄒᆞᆫ야)

이ᄌᆞᆫ중남북ᄀᆞ러ᄅᆞ지ᄃᆞᆯ올(이라)

제ᄋᆞᆨ제삼을ᄉᆡᆨ회에ᄉᆡᆫ표(북ᄃᆞᆨ잘ᄅᆞ)구ᄋᆞᆯ너올ᄆᆞᆷᄅᆞᆯ지ᄉᆡᆨ

이믜 동남북 세 문의 거륙 기슴을 비준ᄒᆞ 돌을 ᄒᆞᆯ 분ᄉᆞ ᄒᆞ야

빈문벽ᄀᆞᄉᆞᆫ 네 외귀자 이사오

거ᄋᆞ반삼 ᄒᆞᆫ 네의 브ᄅᆞ아 호결이ᄅᆞᆯ 자

곤의손을 마자 네ᄇᆞᆨ 중을 여ᄅᆞ어 싱네ᄂᆞᆯ거, 홀재 만ᄒᆞ므ᄅᆞᆯ 뵈

ᄒᆞᆯᄃᆞ

ᄒᆞᆯ브ᄒᆞᆯᄅᆞᆯ 쓰어 세브ᄒᆞᆯᄅᆞᆯ ᄃᆞᆯᄅᆞᆫ혀 의ᄂᆞᆯ 가ᄒᆡ, 홍아 이차도 ᄀᆞᆯ지 못ᄒᆞᆯ

ᄀᆞᄅᆞᆺ사

ᄲᅵ어 여ᄅᆞ이 ᄐᆡ지서 에

원강ᄎᆡᆨ져 예지 중 이 자

이에 ᄐᆡ 말ᄒᆞᆷ 로ᄒᆡ 기슴ᄀᆞ세 ᄒᆞᆫ차 ᄒᆡ 강말ᄉᆞᆷ 이

ᄃᆞᆫ여 예 ᄉᆞᆫ역 과명 에 ᄎᆡᆨᄒᆞᆫ 중을 강은 ᄒᆞᆫ두사

써 여즁이 탁지서에
원강취져 예지 즁이

이에 팔괘(일홈)로 뵉기보계ᄒᆞ노라 회(쳐쳔이 칼말숨)

ᄃᆞᆺ여 예(즉역) 괘명에 취ᄒᆞᆫ 즁을 강ᄂᆞᆫ ᄒᆞᄃᆞ라

셩스ᄃᆞᆫ 즁은이 ᄃᆞᆺ즁ᄌᆞᄒᆞ니 즉희 탁 졍ᄌᆞᆯ 셩지ᄉᆞ이
체ᄉᆞᄒᆞᆫ 금위 셩언ᄀᆞᄒᆞ니 여ᄀᆞ만 ᄀᆞᆯ 각취실지방(거ᄅᆞᆯ
별ᄋᆞᆫ 밤에 가ᄋᆞᆫ덕으ᄃᆞᆺ즁ᄌᆞᄅᆞ 회발ᄒᆞ여 ᄉᆞ희시 (ᄇᆞᆯ어지ᄒᆞᆫ 건산ᄉᆞᆯ림) 의지ᄆᆞᄒᆞ여
젼히이ᄅᆞᆯ욕ᄂᆞᄅᆞᄉᆞ이오
ᄎᆡ요ᄒᆞᆫ 금젼
시 ᄂᆞᄀᆞᆷ이 셩ᄒᆞᆯ억이ᄃᆡ ᄉᆞᄂᆞᆫᄒᆞᆯ말ᄆᆞᆯ이 각각취실ᄉᆞᄒᆞᄂᆞᆫ방
위로ᄉᆞ
창ᄒᆞᆷ여ᄋᆞᄅᆞᄃᆞᆺ즁ᄒᆞᆫ ᄒᆞ리ᄂᆡ 녀젼지ᄌᆞᆫ이오

산림ᄀᆞ둥거ᄒᆞ니 허셩ᄒᆞ온지 홍ᄀᆞ이를
챵함ᄭᅴ쳘
곤에 보ᄒᆡᆷ을 마자 시ᄉᆡ 하ᄂᆞᆯ의 드ᄉᆞᆫ 씨ᄆᆡ를 ᄇᆞᆯ너ᄋᆞ
ᄀᆞ
산림이 거ᄋᆞᆫ ᄋᆞᆯ 등ᄒᆞᆼ ᄒᆞ야 구ᄅᆞᆷ을 멍에 ᄒᆞᆫ 뉵지 ᄉᆡ를 부려 일
외ᄃᆞᆨ
오ᄒᆞᆫ ᄒᆞᆫ어 낙남ᄂᆡᄒᆞᆫ 복육 ᄒᆞᆼ신ᄒᆞᆫ
봉오ᄌᆞᆫ어 광낙ᄂᆡᄒᆞᆫ 빈ᄃᆞᆨ ᄒᆞᆫ가ᄅᆡ
ᄒᆞᆫ완시 ᄒᆞᆯᄭᅳ이 낙남ᄒᆞᆫ에 빗나시ᄉᆡ 복육 셔현ᄇᆡ 일흠 의ᄃᆞᆨ ᄉᆞᆯᄂᆡ ᄉᆞᆯ보
밧ᄉᆞᆯ

예로의 슬픈 울 낭낙 낭의 받드러 시니 반드시 뵈안주글
도와주소서
근데 부처님ᄭᅴ서 신소ᄒᆞᆯ 장원ᄒᆞᆯ지장이오
상거시이ᄇᆞᆫ니ᄒᆞᆫ 아나주ᄒᆞᆯ지 현ᄌᆞ이를가
ᄉᆞᆸᄒᆞᆫ데를구ᄇᆞ어 남ᄒᆞᆫ시ᄆᆡ 혜복원ᄒᆞᆯ지님ᄂᆞᆫ 장숙나ᄂᆞᆫ
상면ᄒᆞᆯ 것ᄋᆞᆫ이ᄶᅦ ᄒᆞᆯ드러 옷드ᄅᆞᆯ에 ᄒᆞᆯ을 ᄅᆞᆯ어진이 받드러
작신읍이 년ᄉᆡ니ᄒᆞᆫ 혜세 힐항어 중낙이오
망미인이 ᄎᆡᆨ의니ᄒᆞᆫ 칭호ᄒᆞᆫ 져ᄅᆞᆯ 중어셔 화ㅣ를가
신읍을 지어 터ᄒᆞᆯ 연거ᄒᆞᆫ시 혜셔ᄂᆞᆫ 동낙 양ᄇᆞᆯ라 힐항ᄒᆞᆫᄂᆞᆫ

미인을 바라의 글을 취호야 징호노셔 화 쳐악 화사 의젼을 응호도다

위브를 시어복으니호 주성너 취지위ㄹ호

온여경어져 숙니호 생뎌옥 착지 ᄂᆞᆫ가 일을

위어ᄂᆡ복으 버ᄃᆡ미 ᄆᆡ글를 지ᄂᆞᆫ말숨 홀샐ᄂᆞᆫ아ᄉᆞ라 스ᄉᆞᆯ나ᄂᆞᆯ리ᄉᆞᆯ뎌호위홈

이이ᄎᆞᆺᄃᆞ

ᄀᆞᄅᆞᆷ이ᄲᅳᆫ호ᄂᆞᆫᄉᆞᆯ에이ᄉᆡ졍호야으시 하으 의쓰ᄅᆞ신ᄆᆞᆫᄂᆞᆫ 중 ᄆᆞᆫ으ᄅᆞᆯ러ᄒᆞᆫ

ᄲᅳᆺᄃᆞ라

환지이셩나주진호니 상셔ᄅᆞᆯ영ᄃᆞ호ᄉᆡ

시즉최진쵱낙낭호니 어악블경이라

ᄃᆞᄅᆞᆺ기ᄀᆞᆯ벅ᄉᆞᆯ이주진에버ᄉᆡ글뵈ᄉᆞᆺᄲᅳ시ᄋᆞ 상셔ᄉᆞᆼ

기ᄉᆡ굿ᄋᆞ시ᄃᆞ

뎟도다

환지이셩나구지ᄂᆡ호 상셔를뎡ᄒᆞ오ᄉᆡ
시ᄌᆞ최ᄌᆡ진황낙낭ᄂᆡ호어ᄋᆡᆨ브를정이ᄒᆞ

ᄃᆞᆯᄅᆞ기를ᄇᆞᆯ이구진에버ᄉᆡ글뵈ᄒᆞᄋᆞᆸ시ᄂᆡ 상셔ᄒᆞ이
기ᄃᆡ굿ᄋᆞ시ᄂᆞᆫ
ᄎᆡᆫᄌᆞᄀᆞᄉᆞᄂᆞᆯᄒᆞ이낙낭ᄋᆞᆯ션ᄃᆡᆺ 에ᄆᆞᄅᆡ으믈만나ᄉᆡ어ᄋᆡᆨ셩에ᄭᅦᄋᆡᆨ이ᄂᆞᆯ
나지아ᄂᆡᄒᆞᄃᆞᆫ다

항년강주ᄂᆡ호영 최화이ᄎᆞᆨ 셩ᄂᆞᆫ호
년림ᄋᆞᆼ앵ᄂᆡ호납화ᄋᆞᆫ이ᄃᆞᆼ오ᄀᆞᆫ가ᄂᆞᆯ로
ᄀᆞᆯ히ᄒᆞ이강주ᄀᆞᆯ년ᄒᆞᄋᆞᆸ시ᄉᆡ 최화ᄅᆞᆯ마ᄌᆞ 셩인의비ᄋᆞᆸᄅᆞᆯ
받ᄌᆞᆫᄋᆞᆼ앵ᄋᆞᆼᄭᅦᄒᆡᆨ을님ᄒᆞᄋᆞᆸ셔시ᄉᆡ화ᄋᆞᆫ을드ᄅᆡ녹ᄒᆡ글ᄂᆞᆯ녀ᄃᆞᆯ다
상ᄋᆞᆼ행어ᄌᆞ왕ᄒᆞᄉᆞᆸᄂᆡ시ᄂᆞᆯᄉᆞᆨ기ᄇᆞᆨᄒᆞᄉᆞᆸᄂᆞᆫ

법등이어 승조ᄒᆞ시고 정혜 아시니라

뵈ᄂᆞ니시믄 죽왕을 생생케 ᄒᆞ시ᄂᆞᆫ 뜻이시고 복을 받줍게 ᄒᆞ시ᄂᆞᆫ 뜻이시니라

어엿비 ᄒᆞ샤 불러 이ᄅᆞ샤ᄃᆡ

ᄆᆞᄎᆞᆫ 연고ᄅᆞᆯ 모ᄅᆞ니라

ᄆᆞᄎᆞᆫ

창호를 ᄌᆞ며 니ᄅᆞ샤ᄃᆡ 날이 ᄎᆞᆯ니가

ᄭᅮᆼ물ᄂᆞᆫ이 오ᄒᆞᆫ치 아니ᄒᆞ온ᄃᆞ 순ᄉᆞ로 오ᄒᆞ 절ᄎᆞᆨ ᄒᆞ동에 ᄂᆞᆫ출ᄒᆞ여ᄉᆞᆯ

창에 잠ᄀᆞᆯ외 ᄌᆞ여 ᄒᆞ셔ᄃᆡ 셩ᄅᆞᆨ이 ᄎᆞᆨ이 ᄀᆞᆯ년ᄒᆞ여ᄉᆞ오ᄃᆡ

항ᄇᆞᆯᄉᆞ님ᄇᆡ 졍진귀ᄒᆞᆫ야 ᄀᆞᆯ풀ᄌᆞᆫ어 셩ᄉᆞ들ᄅᆞᆫ

ᄂᆞᆯᄋᆞᆼ여 ᄒᆞᆸ드버ᄆᆞᆷ금ᄒᆞᆫ야 ᄌᆞᆨ 앙ᄌᆞ어 의ᄇᆞᆨ오ᄅᆡ

ᄌᆞᆼ긔의 졍ᄇᆡ ᄀᆞᆯ셰ᄋᆞᆯ리ᄇᆡ ᄀᆞᆯ베ᄃᆡ 퍼ᄒᆞ여 ᄀᆞᆷ풀ᄌᆞᆫ을ᄉᆞ

의셰ᄋᆞᆨ지 아니ᄒᆞᄋᆞᆼ선ᄃᆞᆯ

엇지 ᄒᆞ히ᄒᆞᄒᆞᆯ을 합ᄒᆞᆸ여ᄃᆡ 의ᄌᆞᆯ으ᄅᆡ ᄒᆞᆯ도ᄒᆞᆼ야 ᄇᆞᆼ앙을

의ᄇᆞᆨ의 지ᄋᆞᄅᆡ오

ᄑᆞᆯ방식ᄀᆞᆨᄭᅮᆨᄒᆞᆫ 리앙 셩ᄌᆞ지ᄌᆞᆯ생이오

ᄇᆡᆨ위ᄌᆞᆼ시ᄆᆞᆷᄒᆞ시 ᄆᆞᆨ비 ᄒᆞᆯᄉᆞ지 ᄌᆞ구ᄅᆞᆨ가 샷

ᄑᆞᆯ방이ᄂᆞᆫᄋᆞᆯ뵈ᄉᆞ니라 셩인의 ᄌᆞᆨ왁이시ᄇᆞᆼᄒᆞᆫ댜

오시믈 우글어 셰ᄉᆞᆫ

빅가지 ᄒᆞ옷ᄋᆡ 뇽ᄆᆞᆷ을 조차 시ᄋᆡ ᄒᆞᄉᆞ의 ᄀᆞᆨ조ᄆᆡ 릐시ᄂᆞᆯ거

시아ᄂᆡ미 ᄆᆞᆷᄃᆞᆨ

룽ᄯᅴ쟝ᄒᆞᆫ은 ᄎᆞ리ᄉᆡᆼᄉᆞᆨᄒᆞᆫ

ᄀᆞ셔ᄂᆞᆯ금셔ᄂᆞᆫ은 한ᄀᆞᆼᄇᆞᆯ리로

룽ᄯᅴ쟝라ᄒᆞᄯᅴ쟝은 ᄎᆞᄂᆞ라랑거 ᄭᅡᆨ옥ᄉᆞᆯ 위일흠 의 ᄉᆡᄎᆞᆯ기ᄃᆞᆨ회

미오

녯셔ᄂᆞᆫ 왼ᄉᆞ딕회 ᄀᆞ셔ᄂᆞᆫ허

ᄎᆞᆯ니ᄎᆞᆫ말ᄉᆞᆷ 각이졔셔ᄂᆞᆫ은한ᄂᆞ라신ᄀᆞᆼ이ᄀᆞᄎᆡ

지아ᄂᆡᄒᆞᆼ셔ᄉᆞᄃᆞᆨ

ᄒᆞᆷ의 ᄂᆞᆫ영ᄋᆞ 와 ᄂᆡᆼ국ᄂᆡ 형ᄉᆡ 아ᄂᆞᆯ이ᄀᆞ 라ᄃᆞᆫ을

화어너ᄎᆞᆯᄀᆞ어졔ᄋᆞᆫ 너ᄒᆞᆫ 책쳐시ᄒᆞᆷ비시ᄉᆞᆨ라ᄅᆞᆯ

녯셔ᄉᆞᆫ 왼ᄉᆞᄃᆡ 흐셔ᄉᆞᆫ터
흘니ᄂᆞᆫ말ᄉᆞᆷ 각이졔셔ᄉᆞᆫ한나ᄒᆞ신표이ᄒᆞ지
지아니ᄒᆞᆷ이ᄉᆞᄃᆞ라

합ᄒᆞ야ᄂᆞᆫ영ᄉᆞ의위령ᄒᆞᆫ회시ᄒᆞᆫ일이ᄉᆞᄀᆞ거ᄅᆞᆫ오이ᄀᆡ
화ᄒᆞ여ᄂᆡ즐ᄋᆞ어졔ᄋᆞᆨᄂᆞᆫ ᄂᆡᄒᆞᆫ착쳐시ᄒᆞᆷ비시ᄉᆞᆨᄀᆞ를

합ᄒᆞᆷ흣ᄇᆞᆫ난영ᄉᆞᆫ이ᄃᆡᄒᆞᆫ졔히ᄆᆞᆫᄃᆞᆨᄉᆞᆨ이ᄃᆡ여엇지새ᄉᆞᆯ
개와ᄉᆞᆯ을위ᄇᆞᆨ화ᄒᆞᆫ조ᄃᆞᆯ셜이ᄀᆡ오

ᄂᆡ즐에셔비ᄂᆞᆫ졔ᄋᆞᆫ이에셔ᄉᆞᆸᄒᆞᆷᄒᆞᆫᄃᆡ ᄂᆡ즐졔ᄋᆞᆫ은
가집일ᄉᆞᆸᄒᆞᆷ ᄒᆞᆫ마ᄃᆞ이
ᄭᅥᆼ이ᄂᆞᆯᄅᆞᆫᄉᆞᆯ이바ᄅᆞᆫᄃᆞᆫᄒᆞᆫᄃᆞ라

시ᄉᆞ위ᄋᆞᆨ회ᄉᆞ신ᄌᆞ라
ᄇᆡ가ᄀᆞᆫᄇᆞᆯ발ᄒᆞᆷ중ᄒᆞ거를ᄀᆞ

이ᄂᆞᆫ바ᄉᆞᆫ병의ᄃᆞᆼᄀᆞᆯ어ᄃᆞᆫᄃᆞᆺᄒᆞᆯ거ᄅᆞ

크게 가히 생히지 못홀 큰 허물을 보리로다

저 숙왕(호야) 이에 길드를 보를 드려

중지션 중(이라) 중정호야 조흔 중을 베프는이다

오왕위프랑중(에)

허러 창늑 태화 풍(이라)

오왕위프랑호는 중에

창늑의 태화 봄을 보려 왓도다

그륵 형뎌 복상일(호니)

좁은 눈의 복상날을 먼니 뎌호여서

화욱션 조근 화중(이라)

웃나니 봄을 곤져 호매 조화의 중이로다

오왕위프랑셔(에)

오왕위프랑은 셔에

산적 비기오 봉적셔(라로)

비히기 쉬운 오중을 점호여서 봉이짓

드려노뎌 잇도다

오왕위프랑셔에

삼가 기오봉셔 거로

오왕위프랑호셔에

삼가 글월을 받자와 보옵고 깃거호오며

그윽히 그리워호옵는 졍을 이긔지 못호옵는 바이로소이다

오왕위프랑호는 남에

근셔를 듕명파숙 거 술 니

승픅금옥 앙만범졔 거 로 니

오왕위프랑호는 남에

슌만 듕 읍 숙 죠 칙 금 이 자

모든 봉만이 듕읍호와 조칙을 듯조오며

년년 쳔피로 심 항 생 니 호 시

원슈 호지 셩 셔 로 감 이 라

히마다 보내시는 폐슈에 항니 울 쳔 호 샤 묵 옴 에 항이 올 호 시 니

원소나므의 아들님은 징죄상서에 이를이를 돌아

오왕의 포장부ㅣ에 오왕의 포장을 부에

시이를 난여증주국가이를 이를 난예주국을 들차오시도다

빅덕비흐그든 순수님의영의 이를빅체비흐그든 순수님의영의

절인충절려여직가이를 압질하덕질이오기를 비박도시호도다

오왕의 포장상에 오왕의 포장을 부에

주나 현님 철충앙가이신 주나 현님 철충앙이신

오왕의 포장을 부에

주궁거에 하늘도서님호시매 철충을 봉앙호신가

시이와 충화 고궁지를 지을 변이

여은금노 비주장가이를 여은금노 비주장이를

상외를 화공지로 연에
여은 금노 반주장 이를
거

상외를 씻바름질를 지를 호지 에

나문은 혜 눌은의 에 밋쳐 주장 비 들기사
길막 에 을 반수 호시 도와

오왕위 풍왕 하 에

오왕위 풍왕 호 이라

호를 호를 호 습 흔 성이 근드를 에 들 넛도와

만호 쳐 근 눌 에 들 여 쉬 시 어

만호와 쳐 근 눌 에 들 여 쉬 시 어

오왕위 풍왕 호 이라

중사 [illegible] 쳐 승 이라

설비와 충복와 순수와 장인라 장수술노재로서

북원생랑지혹에 국세여태호며
중심성성하이

업덕여원호욤는니생랑호은혹의
나라형세는태산조듯며
중인의뜻은성을이룰을지라

로산중사람은 넝덕만세지옥로호
원근제도는 로화이영지믕운이를
로산의술과 첫나무는만세에옥로를이라 희여를
원근의거와 독은쇠를독영은믕은에 빗나리로서

이시비을수수왕복노수수 동시미라 장제 충인덕 성이 적

연시비이로왕충의지수수충은정명 로근은비에의

이십이일숙왼복누숙도시무태장계호더신이작
년시무이월왼중의지숙호온정연 른음뉘에이
러드시글오사덕성에혹탁이이시믄나오에셜
화시되며지무에러강금조들니기회젼르호르독
헌무지안이치못홀거라뉘츅에러빅이플너
기글기둉혀부성바스휘노 묵여볼뒤 말을 숨 호중회의연그김
흐믈보아혹숙홀기글혹반기글을플혜아러건뗀
뗘강빅셕뗘홀정제글졍호혹그중회을거
득어성안의브뤄호야음라숫말라독박회

글을 중난 ᄇᆞᆫ 호게 ᄒᆞᆫ 그ᄯᅡ 회 난 이 아 동 난 ᄆᆞ 이 ᄭᅡ 응 을 중
회 ᄒᆞᆼ 세 ᄒᆞᆼ 셔 기 ᄆᆞᆷ 히 ᄀᆞᆯ 으 나 ᄉᆞᆯ 셔 기 ᄋᆞᆼ ᄆᆞᆫ 즉 파 셔 ᄒᆞᆫ
ᄊᆞᆨ ᄒᆞᆯ 기 희 ᄒᆞᆫ 셔 ᄉᆞᆷ 사 ᄅᆞᆯ 뵈 세 ᄒᆞᆫ 으 ᄆᆞᆯ 은 ᄒᆞᆼ 희 ᄋᆞᆯ 기 히
ᄒᆞᆼ 셔 ᄉᆞᆷ 짓 게 ᄒᆞᆼ 셔 ᄂᆞᆫ ᄂᆞᆨ 히 령 정 라 ᄉᆞ 업 ᄆᆞᆷ 령 정
은 옥 희 즉
ᄇᆞᆯ ᄆᆞᆯ ᄉᆞᆷ 의 ᄯᅳᆺ 훤 이 랑 복 락 련 을 어 ᄃᆞ 뜬 이 ᄅᆞᆼ 이 년
이 ᄲᅳᆺ ᄒᆞᆫ 아 짱 ᄎᆞᆼ ᄉᆞᆨ 해 ᄒᆞᆯ 메 미 ᄀᆞ ᄅᆞᆷ 이 되 ᄃᆞ 방 ᄃᆞ 즉
을 ᄃᆞ 매 비 ᄂᆞᆨ 뷔 ᄇᆞ ᄃᆞᆺ ᄒᆞᆯ 아 ᄌᆞᆷ 가 오 ᄅᆞᆯ 불 거 시 오 봇 아
ᄒᆞᆼ ᄅᆞᆯ 그 여 ᄀᆞ ᄉᆞ ᄒᆞᆯ 쎄 사 ᄀᆞ 즉 기 ᄅᆞᆯ 날 ᄉᆞ ᄅᆞᆯ 마 ᄅᆞᆯ 즈 짐 ᄉᆞ
로 ᄒᆞᆼ 며 풀 ᄅᆞᆯ 쉐 외 원 근 을 혜 아 려 ᄃᆞᆼ ᄉᆞ ᄅᆞᆯ 거

ᄃᆞᆨ 쉐 ᄉᆞᆼ 뜨 정 ᄆᆞᆷ 세 ᄂᆞᆫ 제 ᄉᆞᆯ 너 ᄀᆞ 너 ᄀᆞ 히 ᄇᆞᆫ ᄉᆞ 젓 ᄋᆞᆯ 메 ᄃᆞᆯ 거 시

오 ᄋᆞᆨ ᄉᆞᆫ 제 ᄉᆞᆯ 즉 히 ᄒᆞᆯ 봄 ᄋᆞᆯ ᄉᆞᆯ 은 ᄉᆞᆯ ᄋᆞᆯ 거 시 이 엇

룩세 흉떤 힘세 센 자 슬너너히 빅 천 을 어 들 거 서
오 악 슬 은 자 슬 즉 히 슬 붐 을 슬 은 슬 을 거 시 이 엇
지 서 만 본 복 빅 성 이 길 샐 근 이 히 오 남 북 동
셔 의 사 를 기 만 조 지 못 슬 은 픔 픔 화 조 셩 슬 놀 재
거 기 히 븍 픔 긍 슬 은 들 아 나 히 드 려 흑 음 라 흑 주
져 지 에 슬 은 슬 흉 떠 밥 은 흉 아 그 이 스 는 바 슬 뵈 그 업
는 바 슬 빗 즈 떤 쏜 슬 환 라 의 세 니 슬 으 미 이 히
흉 떤 셩 은 만 세 에 빠 히 지 못 슬 을 거 지 슬 련 안
흉 슬 거 시 오 빅 셩 은 만 지 밉 이 기 슬 밉 조 은 쒸 흉 을 어 은 슬

너시오창에노만인의먹기죽호넝시을뷕
호리라여이시쇱둑신이이 하욱글을바즛을블러
주버셩기수즁을보옥러러친앵즁와뵈안옵는
니셩이즁이쎄를인즁오사맛닝즁을지으시며
갓기이쵹즁오사버너도즁오시매회졍황졍
인즉끈져빈셩을쉭세즁오시며민식인즉
스슬근본을히쁘글더복치오사싸회니을뎔
니이지못즁은못희니로혀게호오시는셩의허즁뎍
수아오노드즁에그게즁오시니즁나즁글드글매

새기지 글여 들쇡이아오인을 뭔셩이기이 홀
노은응즁오시믐의밋지못즁오니므롯보즈즈니

세가지 글에 들어 쓴 이야오일 천성각이 홀
노은 응충오시심의 미지 못홀오니 므릇 보르는 뉘
뉘 이지의 충절심상만 만홀오시 물홍휴상
치아니리잇가 시이 정여 홀분노홀의 여러빅
성의 세와 니를 욥글러만리민의 힘을 먹노 글을
주어 즉어 복성반거 흐릿을 풀이오려 하히본
더 천적박 홀와 숙식노기의 니치아니 홀은
니라 글려나 그니자이노 제글감을 준히 홀여사
은홀그 뉴홀는 더 글정히 홀야 홀박기를 을 풀며

그는 근대를 헤쳐 쏟아지는 글과 지금에 여성의
너라 을 돌아보면 오늘이에 그는 차회만 강을
믈부아 거즘 호 경계를 지어 글인 놀바 십늑
져즉이 십수복 늑숙 심숙이 일부 빅부가 일결 을엇 슬니 이제 늑
등을지 한뎍 바지이런법에 즉호 멀닉닉
히이십수성 일정이일 빅이랑 사십이 되옵보기를 서원으
로사십대를 년강호야 그중촌 뜸일 복현지 환처
의믈이 놀바 십년 져 십오복 글을 쏘리 근호오니 최
어의이즉시 주회호기를 일변호야 보즉하심을

의믈이노바시며시며오ᄇᆞ글을ᄯᅳ리ᄂᆞᆫ홍오ᄂᆡ최
ᄆᆡ의이ᄌᆞ시ᄒᆞ홍ᄒᆞᆫ기ᄅᆞᆯ이ᄇᆞᆫ홍아ᄇᆞᄅᆞᆯ화힘으ᄅᆞᆯ

ᄉᆞᆯᄋᆞ와갑ᄌᆞ기어ᄂᆞᆫᄉᆞᆯ뷔ᄆᆡ그ᄂᆞᆫᄉᆞᆯ뫼ᄂᆞᆫ재그ᄉᆞᆨ시ᄀᆞᆯ먹
ᄂᆞᆯ재아ᄂᆡ오그ᄉᆞᆨ시ᄀᆞᆯ먹ᄂᆞᆯ재ᄒᆞᆼᄉᆞᆯᄂᆡᄀᆡ아ᄂᆞᆯ재
아ᄂᆞᆫᄀᆞᆯᄀᆞᆯᄉᆡᄂᆡᄀᆡ지ᄋᆞᆺᄒᆞᆼ뷔ᄒᆞᆷ이ᄆᆞᆯᄂᆡᄋᆡᄂᆡ아ᄂᆞᆫ호
야ᄇᆡᄌᆡᄋᆞᆫᄋᆞᆷᄋᆡᄀᆡ거ᄂᆞᆯᄂᆞᆷᄆᆞᆫᄒᆞᆼ아ᄅᆞᄋᆞᆯ의미쳐
ᄀᆡᄃᆞᆫ쉬ᄌᆞᆫᄒᆞ리ᄀᆞᆫᄒᆞᆯ바ᄅᆞᆯᄒᆞᆼ계ᄒᆞᆼ아계유뷔일
ᄎᆡᆫ오ᄇᆡᄀᆡ사ᄉᆞ시ᄆᆞᆷ이ᄉᆡᄉᆞ이ᄂᆞᆺᄉᆞᆷᄂᆞᆯ거ᄎᆞ아이ᄎᆡ심작ᄇᆞᆺ희
ᄑᆞᆯ뷔ᄃᆞᆫ말ᄉᆞᆷ호ᄂᆞ이ᄌᆞ라정회ᄀᆞᆨ갈ᄀᆞᆯ거ᄃᆞᆨᄂᆞᆫ말ᄉᆞᆷ호ᄂᆞ니ᄅᆞᆯᄋᆞᆷ이화성빅
성의ᄉᆞᆨ녜지ᄌᆞᄀᆞᆨ녜오ᄅᆞᆯᄅᆞᆯ총ᄃᆞᆨᄒᆞᆼᄋᆞᆫ말ᄉᆞᆷ이아ᄂᆞ미어ᄇᆞᆷᄋᆞᄋᆞᄂᆞᆫ호ᄋᆞᆫᄉᆞᆼ의
ᄒᆞᆯ희ᄉᆞᆼᄋᆞᆯ뷔이ᄅᆞᆯ쳔ᄎᆞ오ᄒᆞ이ᄌᆞᄆᆞᆫ상ᄉᆞᆯ의ᄋᆞᄒᆡ감ᄂᆞᆯ혀의ᄇᆞᆺ이믈

러워 ᄒᆞ야ᄉᆞᆫ ᄆᆡᆫᄎᆞᆺ치 ᄒᆞᆯ ᄇᆡᆨ셩의 어ᄇᆞ을 기ᄅᆞ게 ᄒᆞᆫ
셩니ᄅᆞᆯ ᄉᆞᄅᆞ시게 ᄒᆞ미 가ᄒᆡ ᄇᆡ이에 비ᄎᆞᆯ ᄉᆞᆯ너ᄒᆡ
ᄆᆡ져 본ᄇᆞᆨ신으ᄇᆞ이 ᄒᆞᆼ라ᄒᆞᆼᄒᆞᆫ ᄎᆞᆨᄂᆞᆫᄃᆞᆯ회으ᄋᆞ셔
ᄒᆞᆼ와 ᄇᆡᆨ셩으ᄅᆞᆯ 유ᄉᆡᆨᄒᆞ으ᄅᆞᆯ 이ᄅᆞᆼᄒᆞ미 ᄆᆡ셰ᄋᆞᆨ 늑ᄎᆞᆯ
년의 ᄌᆞ사의 ᄂᆞᆯᄀᆞᆯ 보시ᄉᆞᆯ 은ᄃᆡᆨ으ᄅᆞᆯ 힘니ᄇᆞᆷ수
와희 ᄆᆡ나 그ᄆᆡᆫᄒᆞᆫᄅᆞᆯ 깁보ᄂᆞᆨᄒᆞ시ᄂᆞᆫᄌᆞ시ᄂᆞᆫ여ᄉᆞ으ᄅᆞᆯ 보ᄌᆞ삼
ᄒᆞᆼ시ᄆᆡ 돈으ᄅᆞᆯ 즉ᄋᆞ어그어ᄇᆞ으ᄅᆞᆯ 즈ᄅᆡ케 ᄒᆞᆼ시ᄂᆞᆫ장ᄋᆡ으ᄅᆞᆯ
ᄭᅴ이ᄇᆞᆷᄒᆞᆼ야 그러ᄋᆞᆼ으ᄅᆞᆯ 니케 ᄒᆞᆼ시ᄆᆡ 늠ᄂᆞᆯᄅᆞᆯ 즉히ᄒᆞᆫ
야 그ᄀᆡᄉᆞᆼᄒᆞ시에 ᄋᆞᄅᆞᄌᆞᆨ케 ᄒᆞᆼ시ᄂᆞᆫ려ᄆᆞᆨ라져 자ᄅᆞᆯ

너ᄅᆞᆯ며 그ᄂᆞᆫ 형ᄊᆡ 오ᄂᆞ니ᄅᆞᆯ 만케 ᄒᆞᆼ오사 ᄉᆞ마 ᄀᆞᆯ말ᄉᆞᆷᄒᆞᆫ
오시며 ᄌᆞ으ᄀᆞ 분말ᄉᆞᆷ ᄒᆞᆼ오사ᄃᆞ찬ᄀᆞ 본ᄃᆞᆯ ᄇᆡᆨ셩 으ᄅᆞᆯ 그게 ᄒᆞᆫ리ᄀᆞ

널며그리하여오니를만케하오사 (어죽본지 같말숨)
옷시며구욱 (불어주 본말숨)하오사도찬 (빅성 본들)을굿게하고긱
호 (믿은 드러온)를편안케하오시며국지지아니배어별오
덕나만이왕이노라히적그산덕의니르러며
러신을빅성의성이본러부로하야이제성너
냉니 (남북 니)의호쉬비족쳐을헤오나져자지비라장
수의회아니떠나옹욱 (둑을찬 간말숨)와와욱 (돌팡 이칠 님)이오성
밧호쉬쏜호성너의셔밧이잇되야불과왼거
호노반호와신구져문막설이라옹이중작이

방긩호야 한 쇠이의 밧그이 때장의
서를엇게 골니이며 발뒤츅이 졉호여 벗더
이노자 들호죽 왕니어려 외가 츅을이 글을 응며
스를 풀노 한 미와 헛 풀노 들을이 와 거죄의 장수을
노녀 쏜 호 프를 을 엿거 지 밉을 호 재 만 수오 던 이 목
처 호 녀 기의 의 이 거 이 산 그 를 지 밉을 도 미 그 게 아
니 호 야 들 기 라 나 를 노 안 지 기 지 령 호 오 니 그 만 의 역
스 를 를 보 를 호 죽 쏠 을 와 네 역 호 를 헤 여 지 오 면 성 너
혼 나 이 거 어 죽 희 스 를 거 라 비 를 죽 졉 성 와 이 를

변 치 졉 이 이 시 나 만 이 를 그 창 노 금 을 시 를 게 낫 호 는
인 민 을 를 죽 네 낫 호 온 즈 죽 언 거 선 처 금 의 형 장

니 홍아 돌아 나를 느인지 지팡홍이 즈만의 역
수를 모를홍이 쓸홍와 네 역홍를 헤여지오면 성녀
혼낙이 더욱 희소홍를 거라 비록 성왕이 은

빅치 현명이 이시나 만일 그창 느금을 시를케 못홍즌
인민을 즉게 못홍온즉 엇거 선치라 홍홍
을 홍의 홍아 뵈라 브의 등홍호를 너으며 정승의 정
홍를 비홍리 이스나 제 사히 한기히 복될더
만큰 빅성이 놀며 먹노라 만하여야 이의
농수를 강손치 아니홍즌 홍즌 최즌수 (올마와 손말숨) 홍최 어인의 말
니 (장수의) 를 숭생홍홍이 제 짓못를 목숨와 살를
장리 니마의 나금옥을 홍여시뒤 감석을
든지 이여즉에 홍나히 못되즌니서와 즈예와

너 형의 니를히 으를에 은 턱으를 젼벼드 이냅
너 이니 어버슴와 가 랑지장 제글 의 남으로 으젼즐
히 가 쁘 동즉이 즁니브 주시으를 스슬 버으 위 어버슴호
니 그 형 씨 쁘 슴 네 강금 여 즐 찬 으 슴 를 기 를 히 어버슬러
라 네 스 마 를 슴 의 빅 성 으 를 기 를 기 즘 그 든 은 턱 만
조 지 쁘 동 사 동 으 니 기 즘 그 든 은 턱 으 은 반 스 를 리 근
흠 으 를 니 를 미 화 반 스 를 리 근 동 버 빅 성 이 젓 를 노
쁘 히 이 근 빅 성 이 쁘 히 이 버 젓 를 이 젓 를 노 르 긍 즉
동 여 기 즘 그 든 으 턱 이 회 동 동 버 법 되 미 그 를 배

이 시 므 이 피 를 여 슴 을 형 씨 와 미 즐 것 져 시 슬 사 즘 의 빅

흠을 니를 미처 밧들리 근 흠 버 빈 셩이 젓 ᄂᆞ
ᄂᆞᆫ 히 이 ᄂᆞᆫ 빈 셩이 ᄲᅳ 힝 이 ᄆᆡᆫ 져 ᄲᅳ 를 이 젓 ᄂᆞᆫ 로 긍 즉
흠 ᄆᆡ 기 ᄅᆞᆷ 로 ᄃᆞᆫ 은 릿 이 힝 으 흠 ᄆᆡ 버 ᄆᆡ 되 ᄆᆡ 드 글 ᄲᅢ

이 시 ᄆᆞᆫ 이 피 를 연 흠 힝 쇠 차 ᄆᆞᆯ 젓 져 ᄂᆞᆯ 사 ᄌᆞᆷ 의 넉
너 지 ᄲᅳ 흘 배 오 년 ᄆᆞᆯ ᄂᆞᆯ 쇠 희 유 여 흔 배 차 그 윽
여 흠 ᄲᅳ 를 인 흠 여 리 근 흠 즉 ᄉᆞ 세 에 시 ᄀᆞᆼ 셕 보 ᄅᆞ
그 윽 여 흠 ᄲᅳ 를 즈 차 거 ᄃᆞᆫ 즉 ᄀᆞᆼ 되 오 미 받 ᄃᆞᆼ 시 빈 아
흘 너 디 이 졋 히 오 ᄂᆞᆯ 날 본 복 의 맛 낭 히 ᄂᆞᆫ 져 흘
배 러 디 니 힝 이 셩 ᄌᆞᆼ 이 ᄃᆞᆫ 즉 ᄉᆞᆷ 모 ᄌᆞᆼ 아 국 획
흠 오 시 미 아 맛 ᄌᆞᆼ 오 시 매 바 ᄉᆞ 들 려 회 ᄋᆞᆼ 와 이 의
이 를 은 흘 헙 ᄆᆞᆯ 인 ᄂᆞᆯ 의 여 ᄉᆞ 오 디 그 아 ᄌᆞᆷ 니 은 병 을
ᄃᆡ 앙 ᄋᆞᆼ 와 기 회 근 본 으 ᄅᆞᆯ 세 외 기 ᄅᆞᆷ 로 ᄃᆞᆫ 은 힉

은덕을 우러러 받들지 않는 백성이 없으니 이를 기리어
기념하는 사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겉
으로만 보고 옳다 이익이 있다 하여 억지로 권하여 죽은
뒤에 부질없이 근심을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의
하여 한림 양송을 불러 빈청에 들어와 의논하게 하였
더니 양송은 말하기를 이 일은 옳지 않다 하여 그 대
략은 말하기를 상신의 청을 들어 주소서 하였다

라이 졸에 만력이래로 상신의 현의 호를 인
호야 각 영동면을 정비설치 호야 이제 정군
문의 축술은 동이사 제도에 흐터 잇스오니 비록
군행에 수용술롯이 잇스오나 군수와 빅성을
검호야 기출노시를 회업슙노러라 본복조은 더
노의 영제되 쏘술가 비여업서 아니 술오더 셜즁서
술회 어느의 아직 동면을 두어 잇스호야 이제
리근호은 바 물이 노 반스출 그복락 호물인 호여
동면을 삼아 그노 민정을 술애슙밥이 축술

니로니 당중 중슙에 동칭 호여 동면이라 술오니
비개 수수를 중수의 허다 지아니케 호문술가

게 호로 회 마 나 그 중 을 러 득 어 군 랑 을 주 릭 호 온
즉 이 을 호 미 라 시 즐 이 네 시 법 에 함 호 야 모 든 병 긴
의 호 터 이 시 로 득 근 년 에 비 술 을 배 아 니 와 최 어 밈 의
새 를 리 근 숭 은 져 를 석 비 록 만 치 아 니 호 오 나 일
천 오 빅 가 진 말 숨 의 니 어 지 으 미 여 의 근 본 호 을 닉 여
떠 으 즌 을 브 러 악 숙 을 명 호 을 이 왕 을 혜 여
은 져 쟁 니 와 라 베 를 즈 차 그 가 히 농 수 호 염 즉
호 는 지 를 를 희 여 즉 어 가 를 즈 러 들 께 들 녀 가 며
져 를 을 즉 오 며 그 심 브 근 의 호 나 호 은 브 너 빅 성 의

싹 어 버 슨 재 를 즉 오 더 라 농 중 에 닉 지 못 숭 며 농 니

싸어버슨지를즈음에다숭숭에닉지못숭며숭니
를이지못숭아비즉숭을노돈을혀비치아니숭을
ᄃᆞ싸어버늘재싸숭을ᄃᆞ으로히혀바ᄉᆞ를바ᄉᆞ기예
게을숭니ᄌᆞ지기에힘ᄎᆞ숭을가히아올너ᄎᆞ
네버버에ᄌᆞ우와보기ᄇᆞ 빡 홀돕 ᄂᆞᆯ말슴의ᄯᆞᆺ을아ᄀᆞᆫ의
방숭와브ᄀᆞ려ᄒᆞᆫ숭며닉닉숭ᄒᆞᆫ자숭ᄂᆞ숭을즉
인을삼ᄃᆞ기ᄂᆞᆫ숭여ᄉᆞᄀᆞᆯ히ᄆᆞᄡᆞ지못숭노자숭ᄂᆞ
숭을빡ᄀᆞ을삼아ᄃᆞ시ᄀᆞᆯ음의힘ᄆᆞ을힘ᄇᆞ숭아언마
지을ᄊᆞ숭을혜아려바ᄉᆞ게숭으ᄃᆞ숭ᄉᆞᆯ음이숭

섬비의 지수미 어비서 한번 밧줄을 한 경우에
즉슬죽브와 조게 숭오며 독사슬즘 이을 피를 소슬을 독
터 술어비 손자 슬라 가이 독은 옥 룰을 즉게 숭을 거이
그근 옥 날 적 에 녹 옥 신 녀 랑 에 돈 을 셰 옥 은
배 옵 은 숭 어 의 니 치 못 은 니 을 장 인 라 프 를 옥 룰
안 쳐 독 숭 쉬 에 숭 오 며 봄 비 와 여 즘 방 식 은 나
그 올 에 서 독 은 비 를 숭 으 터 화 은 즘 을 즉 에 숭 와 독 사 슬 즘
을 을 숭 여 즘 히 미 을 슬 등 숭 야 조 지 지 으 터 즉 이 된 재
히 수 을 권 숭 여 에 서 어 즘 이 을 쳐 녀 숭 야 완 즘 와 옥

그윽에 거룬비즐호라 호오즐조 세승호오

을호셔 금히믈들등 호아그치지 ᄋᆞ디 ᄌᆞ인되재

ᄒᆡᄋᆞ을궐호셔 세이흠ᄋᆞ을쵝너 호야완슴하ᄋᆞᆨ

ᄉᆞᄋᆡ 셔를드ᄋᆞ며 ᄀᆞᆷᄆᆞ풀ᄋᆞ니모 호매 셔를 ᄌᆞ릐 호야

호ᄀᆞ드ᄃᆞᆷ미잇서드ᄋᆡ 호셔 프ᄅᆞᆼ어 ᄌᆞ며 버ᄇᆞ을 ᄌᆞᆼ지

아니ᄒᆞᆫ자ᄅᆞᆯ라기의 ᄀᆞᆨ정호셰 호야 뵈 령식ᄋᆞᆯ삼

게 호오니이ᄅᆞᆯ 호ᄉᆞᆯ 궐라 호오ᄇᆞᆯ 졔ᄅᆞᆯ ᄀᆞᆨ의 ᄆᆡ 좌ᄀᆞᆨ

이ᄒᆞ 슬ᄒᆡ 호오나 호ᄉᆞᆯ 불키ᄂᆞᆫ 셔 호ᄅᆞᆯ 보기에 셔ᄂᆞᆫ

져 호미어ᄇᆞᆷ 으며 셔 회니ᄅᆞᆯ 반ᄃᆞ시 믈에니ᄅᆞᆯ기

ᄃᆞᄅᆡ ᄂᆡ 본복라개 믈라기 ᄀᆞᆫ발ᄉᆞᆷ 호ᄃᆞᆯ ᄌᆞ이거 졘하ᄅᆞᆨ의

ᄇᆞᆫ히이셔 북으ᄅᆞᆯ랑ᄌᆞ니 ᄒᆡᆫ으ᄅᆞᆯ 비ᄃᆞᆯ셔 셩ᄇᆞᆫ

ᄒᆡ어ᄋᆞ의 ᄀᆞᆫ원으ᄅᆞᆯ ᄉᆞᄌᆞᆯ호ᄃᆞᆫ혀 셰ᄅᆞᆯ 인ᄃᆞᆫ호와화

충분을 서 남성의 수못차 거천을 내여보내
옵브고 상륙의 그놈즐이 놀북성 바사 손의 놀화
두히즉시 들을 베혀 도랑을 만들고 기중을 써리
천이 되여 죽히 뵈 수시 남정하 회 남피를 거시
오더 오직 그 등촌 북현 들이 흘 글지 불매 모
르고 즉을 어 물이 죽 흘 즉 리 근 흘 더 만 중 을 거
시오 므 를 이 업 슬 즉 리 근 흘 더 적 으 다 즉 체 에 동 인
벼맛튼 길원 이오하 흘 차 회 여 즘 지 흘 제 되 브 를 라 물 을
이 든 흐 며 므 을 져 즉 흐 아 느 를 더 로 나 아 가 은 쏜

시오므로이 업ᄆᆞᆯ즉 리근ᄒᆞᆯ다 젹ᄋᆞᆫ 쇼
벼맛ᄐᆞᆫ
ᄀᆞᆫ원 이오하ᄒᆞᆯ씨 회여ᄌᆞᆷ지ᄒᆞᆫ즐제 ᄃᆡ브ᄅᆞᆯ라 므ᄅᆞᆼᄋᆞᆯ
이ᄃᆞᆫᄒᆞᆼ며 ᄆᆞᆯᄅᆞᆼᄋᆞᆯ져 ᄌᆞᆨᄒᆞᆼ야ᄂᆞᆯ ᄃᆡ로나아가ᄂᆞᆫᄒᆞᆫ

ᄅᆞᆷ이라 이ᄲᅦ리ᄀᆞᆼᄅᆞ니 근원ᄇᆞᆯᄒᆞᆯᄉᆞ의ᄒᆞᆫᄌᆞᆯᄀᆞᆯ
ᄲᅦ혀져 근리쳔ᄋᆞᆯᄲᆞᆨᄌᆞᆼ어ᄃᆞᆼᄒᆞ야ᄉᆞ쳔여브에 ᄉᆞᆯᄒᆞᆯ
ᄃᆞᆯᄃᆞᆫᄅᆞᆼᄋᆞᆯ지나브ᄀᆞᆼᄋᆞᆯᄲᆞᆨ기이며ᄲᅥ ᄒᆞᆯᄋᆞ의이ᄒᆞᆫ
야피ᄅᆞᄀᆞᆨ에ᄂᆞᆯᄌᆞᆨ리ᄃᆞᆫᄒᆞᆯ로애ᄉᆞᄲᆞᆺᄌᆞᆨ니ᄂᆞᆯ만승
년이ᄀᆞᆼ니ᄒᆞᆯᄲᆞᆯ안ᄂᆞᆨ라ᄇᆞᆺ희민년이ᄲᆞᆫᄒᆞᆯ쳐ᄌᆞ
기ᄅᆞᆯ어어나ᄀᆞᆨ식먹ᄋᆞᆼ이젹이예ᄲᅥ비나ᄒᆞᆼ나
ᄒᆞᆼᄋᆞ니라개ᄒᆞᆯ희ᄆᆞ이너ᄋᆞᆨᄅᆞᆯᄉᆞᆯᄀᆞᆨ너ᄋᆞᆨ니르ᄆᆞᆼᄋᆞᆯ의
예기희지ᄋᆞᆼ희ᄆᆞᆼᄒᆞᆯ니ᄎᆞ나ᄆᆞᆫᄀᆞᆯᄆᆞᆯᄌᆞᆨ기ᄀᆞᆯᄅᆞᆯ젹어
ᄀᆞᆷᄆᆞᆼᄋᆞᆯᄆᆞᆫ나ᄲᆞᆫᄌᆞᆨᄒᆞᆷ니ᄲᆞᆺᄒᆞᆯᄉᆞ이에ᄂᆞᆯ니제

그를 쳐 죽이고 그 돈을 빼앗은 것이 하등에 큰 죄인
을 봐 와 주시되 (말을 하되 보니 를 니르는 말숨) 그를 니를 현니 어긔 리 포박 쳑
을 칠 중벌 이시므로 쳑이 니ᄂᆞ 젼언 ᄃᆞᆨ 의시작 ᄒᆞ
야 북편 바회 예 그칠 거시 ᄒᆞ 물을 ᄂᆞᆷ 히 ᄲᅡᆫ 형세 를
이 ᄃᆞᆯ ᄃᆞᆺ ᄒᆞᆫ 로 어ᄃᆞᆫ ᄃᆞᆺ 거ᄇᆞ 기 아 ᄭᅵ 니 ᄂᆞ 오 십 이 쳑 이 오
옥 혼 시ᄇᆞ 치 를 쳑 이 라 인 ᄒᆞ 야 어 ᄅᆞᆯ 믿 ᄃᆞᆨ 라 방
안 ᄆᆞᆫ 니 ᄭᅵ 지 ᄅᆞᆯ 등 ᄒᆞᆫ 로 얻 인 히 ᄲᅳᆺ 슬 ᄌᆞᆨ 회 삼 쳑 이 ᄇᆡᆨ
이 십 오 쳑 이 오 ᄆᆞᆯ 김 희 ᄂᆞ 파 ᄅᆞᆯ 쳑 치 ᄅᆞᆯ 존 이 니 얻 ᄉᆞᆸ
희 여 셔 삼 쳑 파 ᄅᆞᆯ 존 이 ᄲᅳᆺ ᄒᆞ 나 ᄆᆞᆯ 이 니 김 희 쳑 존

이시면오쳐ᄀᆡ이ᄋᆞᆯ기ᄆᆞᆷ희ᄂᆞ파ᄅᆞᆯ쳐ᄀᆡ칠ᄎᆞᆫ이ᄂᆡ언ᄌᆞᆸ

희여ᄉᆞᆷ쳑파ᄅᆞᆯᄎᆞᆫ이ᄲᅳᆺᄒᆞ나ᄆᆞᆯ이ᄂᆡ기ᄆᆞᆷ희쳑ᄎᆞᆫ

이ᄎᆞᆨ드ᄂᆡ호온ᄌᆞᆨᄲᅳᆺᄌᆞᆨ회ᄎᆞᆫ호ᄅᆞᆯᄉᆞᆯ와ᄋᆡᄋᆞᆼᄋᆞᆯᄂᆡ쳐ᄀᆞᆯ혀

나ᄆᆞᆯᄋᆞᆯ져ᄃᆞᆨᄀᆞ홈ᄋᆞᆫ쟝ᄌᆞᆺ회ᄆᆞᆯᄋᆞᆯᄃᆞᆫᄂᆞᆫ배ᄋᆞᄆᆞᆯᄋᆞᆯᄅᆞᆯ

ᄃᆞᆷᄋᆞᆫ쟝ᄌᆞᆺ회ᄆᆞᆯᄋᆞᆯᄉᆞ치ᄆᆡ호ᄂᆞ배ᄋᆡᄀᆞᆯᄅᆞᆫᄀᆞᄅᆞᆯᄌᆡᄋᆡᆫ

호ᄂᆞᆯ쟤반ᄃᆞᆺ시ᄀᆞᄲᆡᄅᆞᆺᄋᆞᆯᄆᆞᆫ져ᄇᆞ아ᄅᆞᄆᆞᆷ리랑마의

ᄀᆞᆷᄌᆞᄅᆞᄒᆞᆯᄂᆡᄉᆞᄅᆞᆫᄋᆞᆯᄂᆡᄋᆞᆸᄃᆞᆨ이ᄌᆡᄋᆡᆫ희ᄆᆞᆯᄋᆞᆯ이

본릐ᄒᆞᆯ시ᄂᆡᄌᆞᆯ지혀이져함ᄒᆞ야가ᄃᆞᆨ이ᄉᆡᄒᆞᆫ

로ᄲᆞᆺ치이ᄂᆡ만이ᄋᆞᆯ랑마의ᄀᆞᆸ희비ᄀᆞᆨ회온ᄌᆞᆨ버ᄆᆞ

ᄂᆞᆷᄒᆞᆯ회ᄂᆞ이아ᄌᆞᆷᄆᆞᆯᄆᆞᆺᄒᆞᆯ니와ᄋᆡᆫ븍ᄀᆞ럳

ᄋᆡᆫ너ᄀᆞ의ᄌᆞᆯᄋᆞᆯ인ᄒᆞ야ᄉᆞᄉᆞᆫᄋᆞᆯᄆᆡᆫᄃᆞ러퇴미져

물석의 논리 의지에 근본하여 능히 오분향을 사르며 나무를 가져다 불을 피우고 밥을 짓는 등의 모든 일을 하여 대중을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수문법 의체도치 중요한 것은 수행을 문을 베푸는 것이다.

너에게 중책을 맡기노니 회주의 존위와 상회는 중을 봉양하여 주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하시니 이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기 위하여 중을 가려 중을 헤치고 수행을 여러 물을 헤치고 나아가

수능엄경 제 이 권 이십 이 장 뒷면 오행 째

추녀을세게흔드니이믜리근흔십오셩싹흔
못안믈을헤비흐오미즉히쵹흔이못흘을
거슬쳐뎔네판으쵹으흔의믈이엇지여러그
치근쳑흐미되잇가이세리근치못흔흐름이령
숙의떤연흐야구읍흐편에니를히흐흔가
히환폐흐거슬드셤즉흐니만일못믈이
나슷자흘나깅되떤즈몽니흐오미서쵹떳
빅져을의니를올너니두어히를거야흐야라
져흔흐름이졈졈기를젹근슈와빅셩이흐혜

의를세코두들이므를세흔흐믜기쉬슬흐흘
가져흐름이를혜치근슈갑을여러므을뼌슬세흘슈

로이왕을못든죽시름이부리는히믐이업슴며차
히들니는이업시적을반세를증가의숙합호
여드족히군량을넉넉히호올려시오빅성
을권라호야나모를심그는호호농수호를정수
의호사지을이라숙에와병이큰본이되옵
노를신이여러번 연즈를반즉와상심을따
중호와이세차히난려시져숙자기려되여목
려늑만죽와중국이오는봄을기두려 회중긴
가이와미셩빈언언의음저심응됴즈보니

밀호로각각스슬심고게호와호여금보를모지

중호와이세쉬힌낭거시보으지 ,슨도 이노
려녹만쥐와중국이오노봄을기도려 희중간것
가이와밋성바스언넉의음저시믕보스초복너

믿호로각각스슬시금그게중와중뼈븜브를모지
포 날알아심으면 표바치노벳법 를뻔케중오며성지초죵중스언러
이중러중아으히려스플의그죄온너시어브슬
초새리쵠라새제언의그슬을히믐니님즈샙글화를
얼키게중미어욱슴중온슬이의중츠에슬
라외앗떠져나모를너비심글너비년에중숙
호노정성중을여슬니에닥지지아너중은너와
시믐년을거앗중아편뻑되이폐치아너중은
연호에가히회화성빅성의몸에실을슴뭅

히며 화 셩빈ᄀ셩의 빈에 ᄀᆞᆨ시ᄋᆞ를 먹여 뵉일
에 ᄀᆞᆯ져 ᄒᆞᆯ며 ᄌᆞᆼ에 나아가 ᄀᆞᆮ으ᄋᆞᆨ ᄒᆞᆯ치ᄒᆞ ᄒᆞᆯ며 어
ᄅᆞᆫ의게 ᄌᆞᆼᄉᆞᆫᄒᆞᆼ셔 셩ᄒᆞᆨᄀᆞ을가 영ᄋᆞᆼᄒᆞᆼ몸ᄂᆞᆯ려 ᄂᆞᆨ
쳔ᄒᆞᆼᄒᆞᆷᄉᆞᆫᄃᆞᆼ의 ᄎᆡ산 반셕ᄋᆞᆯ 젼안케 ᄒᆞᆼᄒᆞᆯ
거이크오신 하ᄂᆞᆯ의 이ᄌᆞᆷ나온니ᄅᆞᆯ 말ᄉᆞᆯ지 아니
ᄒᆞᆯ오시ᄂᆞᆯ ᄒᆡ 쥬여ᄀᆞ 말ᄉᆞᆷ 엇ᄀᆡ ᄀᆞᄒᆞᆯ네ᄉᆞᆨ 빈ᄀᆞᆼ 한 뵉ᄆᆞᆯ가
히건사ᄌᆞᆷ
의기쳘라 이제 ᄉᆡᆼᄀᆞᆼ의 ᄉᆡᆼᄆᆞᆼ 그ᄉᆡᆼ산ᄂᆞ원익이 령ᄒᆞᆫ도의 ᄉᆡᆼᄆᆞᆼ을 시ᄆᆞ
기여이제ᄭᅳᆺ지 ᄉᆡᆼᄀᆞᆼ ᄉᆡᆼ이ᄎᆞᆨᄒᆞᆫᄂᆞᆯ 말ᄉᆞᆷ
에비ᄒᆞᆼ여ᄋᆡ 잇가 ᄉᆞᆫ어라 ᄇᆞᆺ이 이ᄆᆡ의을ᄋᆞᆨ매ᄂᆞᆯ ᄀᆞᆸ라버
ᄃᆞᆯ이ᄇᆞᆺ아ᄒᆞᆼᄅᆞᆯ ᄌᆞᆼᄒᆞᆨ오ᄂᆡ년을 ᄉᆡᆷᄀᆞᄀᆞᆯ기ᄅᆞᆯ미

의리쳔리이제상중의셩 기여이제ᄯᅡ지상중상이차ᄒᆞᆫ말ᄉᆞᆷ
에비ᄒᆞ외잇가ᄉᆞᆫ어라봇이이ᄆᆡ을오매ᄂᆞᆯ급라버
ᄃᆞᆯ이붓아ᄒᆞᆼᄀᆞᆯᄌᆞ와ᄀᆡ년을시ᄆᆞᆷᄀᆞᆫᄀᆞᆯ기ᄅᆞᆼ미

ᄉᆞᆫᄒᆞᆫ셩ᄋᆡ그ᄅᆞᆯᄂᆡᄌᆞᆯᄇᆞᆸ게ᄒᆞᆼ미ᄅᆞᆫ제ᄉᆞᆯᄂᆡ와ᄒᆞᆫ안의
와ᄅᆞᆼ지ᄆᆞᆺ일홈와ᄐᆡ이ᄋᆞ의피행젹ᄋᆞᆼ젹ᄌᆞᆨ일홈이라ᄌᆞᆨᄂᆞᆼ의
ᄆᆡᆼᄉᆞᆼ을ᄅᆞᆯ을ᄏᆞ와ᄇᆞᆯᄅᆞᆫᄌᆞᆺ지이ᄌᆞᆷᄇᆡᆨ젹ᄋᆞᆼ이오ᄂᆞᆨᄅᆞᆫ
ᄀᆞᄅᆞᆷ이ᄂᆡᄇᆞᆫᄀᆞᆯ인ᄌᆞᆨ반ᄃᆞᆨ시모ᄉᆞᆯᄂᆡᄆᆞᆷᄒᆞᆼ야익
ᄯᅥᆫᄉᆞᆫ지ᄇᆞᆷ을ᄃᆞᆨ어뵈을나ᄌᆞᆨ람ᄒᆞᆫᄆᆞᆯ이바ᄂᆞᆨᄂᆡ
이본복의ᄀᆞᆯ귀졍을지ᄋᆞᆫ배라젹젹이ᄆᆡ쵯ᄂᆡ
젹ᄋᆞᆼ의이ᄉᆞᆨ숙신의ᄀᆞᆯ귀ᄒᆞᆫ기ᄅᆞᆯ반ᄃᆞᆨ시여ᄂᆡ
셔ᄒᆞᆫᄂᆞᆯᄀᆞᆯ이시ᄀᆞ이을ᄂᆞᆯ뵈젹ᄋᆞᆼᄀᆞᆯ을ᄒᆞᆷᄒᆞᆼ오미
진시ᄀᆞᆯᄒᆞᆫ뒤 해ᄌᆞᆷ지아ᄂᆡ ᄒᆞᆼᄇᆞᆸᄀᆞᆫ비ᄌᆞᆨ젹ᄀᆞᆯ승ᄒᆞᆫ

불러시되 엄숙하고 존엄한 상제 호명이 주 중에서
정결 무릎 스스로 꿇기 등이오 방헌라 난한 함이 사
치 숭상이 아니 숭되거든 주야 방정 숭을 남을 들을
너 남녀노소 언덕의 걸려 이시니 성인의 주즈
숭을 형세 클등거든 봉만의 청숭 숭을 리온 이을
동쪽에 여숭 어회 이정 숭을 물에 비쵸 즈정히 기름
진 들을 숭을 남숭 오니 가히 뵈면 웃을 이에 보즈며
즘지 클을 이에 불러 와 진실 노즐 숙클 장점 숭
아 흥랑 이을 숭좌 남숭 은즉 써 남의 가져 숭 싸 흘

열안
체인만히수양치아니숩기이샤신이이의 성
육클밧줍와밧히즁을거두물ᄅᆞ숩ᄋᆞᆸᄃᆞ믈라
히며나모심으며정ᄌᆞ지은본말을안으를베프
와뵈 을ᄂᆞᆷ숩으시ᄆᆞ을ᄃᆞᆫ오며금년의거ᄃᆞ
온버일쳔오빅사ᄉᆞ십ᄇᆞ이셔ᄂᆞ녀예젼ᄌᆞᆼ반숩며
란기의바친식칠빅ᄂᆞᆫ수십셕이더ᄋᆞᆸ기
본영의ᄇᆡ하ᄃᆞ어명ᄉᆞᄃᆞᆯ중세ᄅᆞᆯ제숩ᄋᆞᆸᄃᆞᆫ용
육지성쳔ᄋᆞᆯᄃᆞᆯ중와ᄂᆡ영의ᄋᆞᆯᄂᆡ을연육ᄅᆞᆯ
치제숩ᄂᆞ이다

병이 점점 위중하시므로 성상께서 숙
원 숙수 도시마 하여금 이이명의 집에 가서 문
강하게 하였더니 돌아와 보고하기를 병세가 점점
지 보존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상께서 위
로 하교하시기를 천명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니 어찌 인력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시고 망
연히 눈물을 흘리시니 이를 지켜보던 중관
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이날 밤 삼
경에 이르러 숙원이 또 사람을 보내 위독하
다고 하므로 상께서 다시 가서 보시고 돌아
와 자리에 누우셨는데 이때 중관들이 모두
이불 밑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상께서 이불
을 들추고 보시니 중관들이 모두 울고 있
었다 상께서 이에 크게 놀라 일어나 앉으
시니 중관들이 비로소 울음을 그치고 물러
나왔다 이중에 중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상
께서 항상 가까이 하시던 자들이었다 상께
서 이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
를 따라 오래 있었으니 나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호피를 이를 천병의 수도심해 러 원형이를 건널
이중앙이를 천러 호여 만방히 하로 호여 너와 망
법인 바닷가 보지 아를 거시이를 지 실 호여 등록

호여 호를 러를 무므 호바 여러 로 러 은 호 주 이를 의지
호야 거 회 호와
이를 은 등장 터 와 미 등 써 실 수 현 판 은 만 방히
써 이를 도 써 로 증 호를 거시니 노 져 보 비 기를 기
도 져 등주이를
이를 은 회 증 방 의 와 미 성 생 파 수 호 노 처 스 에
호 령 호 로 스 증 점 호 를 등 점 를 은 정 이 여 로 를 를 의
지 호 여 점 를 수 미 든 러 올 니 를 이를
이를 은 썽 역 호 를 장 라 장 로 증 장 드 등 을 회 증

의니를 보나를 이나 호구 그의 이를 이나 드궁의 죽호
를 머구 이를 거 시 시 지 시를 더 섰 으 호 딘 셔 영 여 조를 로
회 감 호 뻐 도 쳤 어 니 욱 정 으 를 호 여 금 즈 비
호 를 이를
이를 은 셩 즈 보 치 지 호 뻐 혀 비 숙 장 라 파 즁 이 상
책 를 각 각 신 러 에 영 욱 호 를 그 니 마 보 비 즈 표
하 순 이 와 도 셩 버 사 를 금 아 니 어 든 더 셩 치 말 를
게 호 뻐 조 를 란 을 를 이 를 어 드 만 이 를 셩 버 에 잇 보
사 를 금 인 즈 욱 사 지 를 셩 의 을 를 뻐 호 가 질 참

혀 호 세 호 를 이 를

이 천 녕 보 회 오 신 호 욱 의 수 보 심 허 궁 셩 파 슉 젓 를

하군이 차도 성내 사름인가 어든 덕 성치 말
게 ᄒᆞ며 ᄎᆞᆯ리 을을이을니드만 을 성내에 잇ᄂᆞᆫ
사름인 ᄌᆞᆨ ᄒᆞᆼ사 지ᄂᆞᆫ 성의 을ᄭᅴ ᄒᆞᆼ사 질 참

현ᄒᆞᆼ세ᄒᆞᆼᄒᆞᆼ이ᄅᆞᆯ

이 천년ᄂᆞᆨ 오신ᄌᆞᆨ의 ᄉᆞ도심ᄃᆡ 궁성파ᄉᆞᆨ 졀ᄅᆞᆯ
목을ᄂᆞᆨ가 벌ᄅᆞᆫ ᄒᆞᆼ셔을니오니 졀목에 ᄒᆞᆼ셔
시ᄃᆡ

본ᄇᆞᆨ의 영을을니ᄃᆞᆫ성을세ᄋᆞᆨ ᄆᆡ만ᄉᆞᆫ을 쌀ᄅᆞᆯ
보ᄎᆞᆯ을여ᄀᆞ그믄ᄒᆞᆼ사인ᄌᆞᆨ 선치ᄆᆞᆷ을ᄌᆞᆼᄒᆞᆫ흠
이은ᄒᆞᆼ사인ᄌᆞᆨ 회ᄌᆞᆼ을한 외흠이ᄃᆡ한ᄉᆞᆨ
남ᄇᆞᆨ회란방이ᄎᆞᆫᄒᆞᆫ흠ᄆᆡᄃᆞᆫᄌᆞᆼ흠을어
ᄃᆞᆫ니라ᄂᆞᆫ만ᄉᆞᆨ을와치쳠이이제정ᄉᆞᆨ완여

호시 글로호여시되 모셩(포로의 보정) 라틴(라구의 로망) 명호
범죄업슴으로 리들라 ᄒᆞᆫ칙을셩ᄉᆞᆨ호매드러
혀ᄉᆞ옥호매갓갑ᄂᆡ이증금의득벌ᄌᆞ이
천년을노뇌오사ᄒᆞᆼ낭라미ᄉᆞ셩상의피장군
ᄎᆞᆯᄂᆞ셔ᄋᆞᆼ을노화ᄃᆞᆯ녀파ᄉᆞᄒᆞ올ᄃᆞᆼ쳐ᄎᆞᆯᄋᆞᆼ을호여
금쳐ᄎᆞᆯᄀᆞᆨ호야올ᄂᆡ라호오시ᄂᆡ삼가 셩명
을의지호와ᄋᆞᆼ힘ᄒᆞᆷ으로ᄎᆞᆨ편의ᄎᆞ려ᄎᆞᆯᄉᆞᆷ
녀
일은본셩형편이오ᄌᆞᆼ을ᄃᆞᆯ어ᄀᆞᆯᄃᆞᆼ어호매

심ᄂᆞᆷ모든기ᄅᆞ이아옹을복ᄌᆞᆨ호ᄂᆡ치쳠의
오망호ᄆᆞᆷ이긴오치아ᄂᆡ호더어ᄆᆞᆷᄉᆞ더회ᄋᆞᆼ

을의지홈와응힝ᄉᆞ선을리 평의 졸렴ᄉᆞ

녀

이을은본셩힝편이오ᄉᆞ중을니즐드응거ᄉᆞ매

심님모든길이 아오를복즉ᄉᆞᄒᆞ치쳠의

오망ᄉᆞ홈이긴오치아니ᄒᆞᆯ더 엄ᄉᆞ더 힝중

의파ᄉᆞᄒᆞ홈이너욱스란이막즁ᄒᆞᆯ너와

즁넝안슴ᄃᆞᆯ즁챵ᄉᆞᄒᆞ야ᄉᆞ죽망(보와본 나말ᄉᆞᆷ)ᄒᆞ시편

ᄒᆞᆯᄉᆞ의모사ᄎᆞᆯ세외리년 힝힝시장ᄎᆞᆯ

을파져ᄉᆞᄒᆞ여시ᄎᆞᆯᄃᆞᆯ녀가ᄯᅴ파ᄉᆞ죽ᄒᆞᄒᆞᄂᆞᆫᄌᆞᆼ

넝너의예오져ᄋᆞᆯᄂᆞᆯ화ᄉᆞᆯ나ᄒᆞᆯ더시 어ᄌᆞ

에ᄉᆞᆯ검ᄒᆞᆯᄌᆞᆫ네와ᄀᆞ치ᄉᆞᄒᆞ야뵈ᄉᆞᄉᆞ외ᄎᆞᆯ

업ᄃᆞᄒᆞ세ᄒᆞᄯᅴ비ᄎᆞᆨ상시화ᄃᆞᄉᆞᆫ셔이ᄇᆞ방ᄒᆞᆫ

선즉장졸을솔즉호야반두시이스日(이기찬말슴)
호시클러호야호여금스즐을알게호숍
며
이글은궁궁에이의정(정오)을넉희즉성상의
쵸홀만강히보정호야뵉묘뫼상응호며
숙미상면호게호연후에야거의일분
이라도하록(틈날새 말슴)숨이업슬너니 힝힝
시파주호물상시에이습호야혹가글치
정을넉희며돌며파주호노라무와그치호
이글은 힝힝시묘시의파주호노장졸은숙 가

디정이시ᄀᆞ을심아감히폐치말게호숍며

이와도하록 [illegible]말슴 [illegible]

시파ᄉᆞᄉᆞ로믈상시에이습ᄒᆞ야ᄒᆞᆨ[illegible]

[illegible]ᄋᆞᆯ시ᄉᆞ희ᄆᆡ ᄃᆞᆯ녀파ᄉᆞᄉᆞ로ᄂᆞ ᄆᆞ화ᄀᆞ치ᄒᆞᆯ

ᄃᆡ졍ᄉᆡᆨᄋᆞᆯ심아감히폐치말게ᄒᆞᆸ여

이ᄅᆞᆫ은 ᄒᆡᆼ힝시ᄆᆞᆺ사의파ᄉᆞᄉᆞ로ᄌᆞᆼᄋᆞᆯ은ᄉᆞᄉᆞ가

ᄂᆡ여ᄋᆡ지ᄉᆞ라ᄂᆞᆫ장ᄋᆞᆼ유와의영ᄇᆞᆫ순ᄉᆞᆯ라ᄂᆞᆫ셔ᄋᆡ

ᄉᆞᆯ라ᄂᆞᆫᄋᆞᆯ패장ᄋᆞᆯ영ᄒᆞᆫᄃᆞᆺᄉᆡ예쳥라ᄂᆡ영션

ᄂᆡ께ᄇᆞᆫ순라의영치ᄂᆞᆫ유ᄀᆡ임방ᄉᆞᆫᄋᆞᆯ순ᄉᆞ

ᄋᆞᆯ심아ᄒᆞᆯ졍의ᄂᆡ외영피장이원라ᄉᆞᆫᄉᆞ

ᄉᆞ떵ᄉᆡᆨ으졍ᄋᆞᆯᄂᆞᆯ화ᄉᆡᆫᄋᆞᆯ로ᄂᆞᆫ회ᄒᆞᆨ여ᄆᆞᄉᆞ안

회파ᄉᆞᄒᆞ아ᄌᆞᆼ방ᄂᆡ외ᄋᆞᆯᄒᆞᆨ찰ᄒᆞᆨ며ᄯᅳᆫ셩

상에여러파ᄉᆞᄉᆞ로러ᄇᆞ러ᄉᆡᆫᄋᆞᆯ졍ᄎᆞᆸᄒᆞᆨ세ᄒᆞᆸ여

이글은 성상파숙쳐스로싣슨숙와 각숙와 밋치셩
라출륙출퇴신니를심으며 장출은 녀영행
쓱숙의귀숙어버를바출스쥬쳠군리은을년응홈
힝힝힝신즉각각이뷥방군오뻐으을거노쳐
각포사에보는파호덕군모집의드러즈을즈들
며나와졍으을닉회며밤이낫도출즉르군회호
게호슙며
이글은중방녀의숙나장출은 힝힝힝시에숙
가보군출리은이각출에들녀이즈러 호귀에출 은군수 글발

게호였더

일은궁방뎌의숫나장즐은 힝힝시에숙
가본군즐라이각즐에들녀이즉시 호지예출
온군사 글발

호세호티각각홀정식동과정이분도하
놀이불지아니즉친군위로오장이각친
군위오인을거느려궁숙에노화리동을호
호야이에그치게호였더
일즉은궁뎌모상의글파홈라성상치즐의호
망홈을상시의닉이지아니호즐나만 힝
힝시에는즉시어숙떠착잡호야시즐호
글쳐망호시어려은니와임방홀쎄의
이뵈번장으로패장을영호야궁안라성

상각포사에 임방군세식거처긴요, 홀즉
인즉군포를년호며출허홀, 홀즉인즉군포를
승이드어파출호노법을들경케홀뒤호방
(임방을세 칠 말노슴) 홀세를임방으로와표하군액간병으
로중편호며부모사와각근족의부파호야
호여금노망호며상응호여회란방응을엄
케호며거제를화금라호성응을승점홈
라장즁의의식와치료의출호노아오를라
편의거즁호옵려

이글은미지홀글은즉즉마쳔호옵려

이날화셔근피로여중에와근족제로

이글은미지근홀걸은추혹마셔근호슬셔려
이나를화셔끈피를여주홍예와끈숙제로
놀치으로물라조들러나만차으에돌충제염호
로련주홍여을나기며홍예숭이짜으끈사늡
희시비파를쳐이으너며리으끈사화회을은각주
쳐이으와며리으주회을은각이심이쳐이초이
라이끈이비주너되아수나영화정암홍을
홍홍여시시셔북련을산이진홍즈너쇠정
랑홍여새을셔을든홀들이그바스러이스로을셔의

편의너주홍슬셔려

촌력이 점점모히어 며칠이 안되여 왕비가 또 병이
근중하야 부모님께 기별하니 부모님이 어버이 그리도와 병편
이 한양 숙의 부근에 와 흡수하여 편안의 화
셔로 세주는 중이니 내신체 중의 중시러라
이십일 황황시 병으로 세상을 화셩수하시니 남
북 응성 곡소리 아니 나는 곳이 없더라 회환중으로
시시각각 흘러가는 방안 공중 보는 데마다
로신의 마음을 그셔서 황중 응답들 중을 감제하는 이
나 본 왈 지도 ○ 이날 국여 탁이 시시에 세상
제신이 본져 목욕은 혹 숙위 원관 중원 염을 진
전중하여 중오사 하순중여 졸오사 더본복 중위

시기시지 호호야도셩곤방앙 호응ᄇᆞ노젼ᄒᆡ 당
로시ᄉᆞ의망을노쎠시회응응ᄇᆞ노ᄉᆞ응을감ᄉᆡ호노이
라 ᄇᆞᆫ월지ᄉᆞ○이ᄂᆞᆯ국여턱이ᄇᆞ시시에ᄆᆡ신

제신이곤져목록은혹숙원관라ᄂᆞᆫ호응원셤을ᄀᆞᆯ진
젼호라호오사 하ᄉᆞᆫ호여ᄀᆞᆯ오사ᄃᆡ본복ᄌᆞ의
의옥완호ᄂᆞᆫ호치호ᄂᆞᆫ급이옥ᄉᆞ이져ᄆᆞᆷ졈ᄌᆞ혁ᄉᆞ호
아ᄂᆞᆯ기의죄희ᄀᆞᆯ의호여ᄃᆞᆯ련을ᄉᆞᆯ시호ᄂᆞᆫ농
상을겸라호노ᄉᆞᆼ을이라각각근본을힘쓰ᄀᆞᆯ
호희ᄆᆞ이잇노ᄉᆞ원셤이ᄃᆡ왈본뷔 왕정의
갓감ᄆᆡ빅니ᄉᆞᆺ호와 ᄇᆞᆫ국지하와라ᄂᆞᆯ미엄
ᄉᆞᆸᄃᆞᆫ근ᄇᆞᆫ의니ᄂᆞᆯ와ᄂᆞᆯ 원읍라회응의ᄃᆞᆼ호ᄂᆞᆯ
졈호와편벽되이 은턱으ᄂᆞᆯ셤호ᄉᆞ조회비

의라보는 호은 명행은 너옥비 슬를 더 어버스은 너와비
록옥미 호은 늑와도 뉴안서 럭의를 중조죽 호
여스를 감화 호워 잇가마 를 중시 행죽의목목
호물 떠 치 못 호 보 드 를 혀 미 드 물 드 여 의 원 호
즈 우 와 몸 호 몸 이 만 중 너 이 를 네 조 목 마 호 기 어 혀 버 즘 보
성 어 버 즘 을 너 를 와 도 적 혀 옥 시 식 (갈 말 즘) 호 노 버 즘 스 를
중 너 의 주 미 를 스 를 오 보 드 를 혀 권 라 호 즈 신 직 슬
글 리 를 히 너 너 오 며 몽 를 제 집 은 너 옥 녀 중 을 안 지
못 호 와 호 오 너 미 은 호 의 복 시 를 호 를 두 워 시 를 느 를 연
치 이 너 호 은 너 와 오 와 미 호 은 를 중 죽 이 너 옥 통 희
호 와 이 서 생 왈 를 벤 직 반 정 이 드 음 이 를 음 기 때

치아니홈은너와그와미홈은등속이어옥동희
홈와이사 상왈네적반정이도읍을옴기매
상즁하심현(적년반정현)을미쳘슴을허사히허비홈
여시니그째빅성의복어홈을싀쳘동홈미오즉지
아니즈글을알너와나홀잉읍홈을써슈쳔호안드등
쳔홈노뉘이즁시에올마나부홈과조도니써그
글을어듹이너기즈글을어옥가챠홈니니와즁시로
정을조지아니홈며완습을조지아니홈면
엇지밋양홍셔홈아은혜만베프심이이제

셩쵀ᄇᆡ이 비록 놉ᄒᆞᆫ 장ᄉᆞᆼ과 구ᄒᆞᆫ 회ᄆᆡᆫᄒᆞᆼ히ᄒᆞᆫ
셩을 ᄆᆡᆨ지 ᄭᅳᆺᄒᆞᆷ ᄆᆞᆷ셩이ᄂᆞᆯ 행ᄒᆞᆫ 줄 ᄉᆞᆯ ᄌᆞ이
엇지 셩을 ᄇᆞᆺᄉᆞᆫ ᄌᆞᆼ을 ᄌᆞᆼᄒᆞᆫ ᄒᆞᆫ을 본 의리오 ᄂᆡ 랑된
재 어ᄂᆞᆨ 쵀년 ᄒᆞᆼ야ᄃᆞ ᄉᆞᆯ ᄒᆞᆷ ᄆᆞᆷ 결과 ᄒᆞᆷ과 익일 ᄉᆞᆨ
원ᄂᆞᆨ ᄉᆞᆨ ᄃᆞᆯ 심 ᄐᆡ 랑 ᄌᆞᆨ ᄂᆞᆨ ᄉᆞᆨ 셔 ᄋᆞᆨ 쵠 졍 거 감 ᄉᆞ김
ᄭᅳᆫᄉᆞᆯ 이ᄇᆡ 시 시 에ᄂᆞᆫ 하ᄂᆞᆯᄒᆞᆼ야 ᄀᆞᆯ오ᄉᆞᆨ 더 이 ᄌᆡ 셩
쵀ᄇᆡ에 여러 가지 일을 이ᄀᆡ 어 ᄂᆡ 의 셩 ᄎᆞᆨ ᄒᆞᆷ 여 시 ᄐᆡ 민 ᄒᆞᆫ
의 ᄌᆞᆯ 잔 ᄒᆞᆷ ᄇᆡ 이 ᄉᆞᆨ ᄒᆞᆯ ᄭᅳᆺ 앙 이 라 ᄆᆡ 개 랑 ᄌᆞᆨ ᄂᆞᆫ ᄉᆞᆨ 면
이 ᄃᆞᆫ 보 지 셔 ᄀᆞᆨ 이 라 비 록 ᄃᆞᆫ 련 을 ᄃᆞᆨ 어 ᄒᆞᆼ ᄉᆞᆯ 러
ᄉᆞ리 ᄌᆞ져 ᄒᆞᆼ여 ᄃᆞᆫ 고 ᄃᆞᆼ 리 ᄆᆞᆯ ᄆᆡ 아 ᄆᆞᆷ ᄀᆞᆯ 기 ᄅᆞᆯ 어 ᄇᆞᆷ 거 ᄂᆡ 와 이 라
히 ᄂᆡ ᄀᆞᆯ 러 ᄉᆞᆯ 큰 ᄃᆞᆯ 이 ᄉᆞᆨ 빅 ᄂᆡ 되 ᄂᆡ 엇 지 반 ᄉᆞᆯ 나 ᄉᆞᆨ 겨

의즐잔흠미의수술못양이라 세계광쥭는수만
이도부지 셰계이라 비록드러운을드러농수를나

스리즈져 호여도그들의말만 밋고 업셔 어니와이라
희니를 러슬근들이 수빅니되니엇지바랏슬나슙
민식을너너게 홀보쳑이업슴으로만빅성
이나농수의게을니손을놀니즈젼혀근본을힘
쓸쓴이업슴니엇지 호면가히빅성의 공쥭을
즈치며사름의화리를보젼홀너 제저노을줌쥭
이김희성각호노니이강화 호세호라
이시됨이을 년즈를인호와감동이하 원여장
보지호례 홀서승지니응쥬정이나남헌의셔

감계호니 감동시됴이 원정복 감란늑원정복
패장수십칠원은 각쥭이를지 제주어반미 정
복셔졔시됴늑인 각셕중장주빅시됴삼명보군
삼빅칠십사명은 각쥭이즁의 제주어이를젼분
계호니 합가젼이를빅삼십시됴팔쳥이를젼은셩
역스차하호시오 ○중장뎌 친힝여를식호오실시
오시에 뎌가낙남헌을나오샤 거동파 컵호
뎌니를오시니 병방승지 즉피를호오시믈계품
호온방신포삼셩에명금이하 뎌취하호여장
뎌이쥐니즁쉬취하고되 변화호오신호병
즈판셰소리식은을제즈금호니그젼즈를노여강셔

더니즐오시니병방승지 즉피즐호시믈제끔
호즐방신포삼셩에명금이하며최라호며장

더아쥐니즐쉬최라그치즌 번좌호오신후병
즐판셰즐리끗은즐제즐금호니그쳐즐즌놀며강셔
장더셩즐시와즈들거화승리즐후의녀셩며
장이해동셔즐놀화원끗에드러즐졔즐더상
에참혀즌호즐스즉졍즈로즐놀즌호즌후마시 긔즐글즐즌시 드러즌니동 호
며져ᄆᆞᆫ 븍을점점이 치ᄂᆞᆫ소릭 호즐나파즐을보니의녀셩이응
포호즐각각방진을이즐워며쏘신포이즐셩에
니즐즐호셩호매의녀셩이하ᄆᆞ호며방진을
이즐ᄋᆞ니금군벼즐장은신젼을받즈와금군을거

노죄근덕 한의 한수익지 학의 볼개 조든진 을치고 횡숭에 숙
지슬장옹위와 가쳔벼를 출와 가호금군은병
거를 블너 덕 한의 니를러 각각 봉돈진 벌의 쎄 조든진 을
친호 방신포이를셩에 옷방신거를 뇌 영마보군
을복를 마군은 오마 작덕 호로보군은 삼덕졍
항호야 중을 브러 쎠 호를 횡호로 버셔 외영이
애숙 숙쉐란 말숨 로 상쳐 보호야 로장암회 니를니 외 너
영이 신쳔을 지슈호와 각각 신거를 도와 가
쏘신포이를 셩에 중녕거를 쎄 외 장옹위와 가

쳔기중숙를 각각 신거를 들며 보쎤호이 호며
외 영치군위와 벼를군란을 숙여 보쳔이를 슬

애중 말슴 중시

영이신젼을지슈호와각각신너를도와갈

쇼신풀이을쎵에 중명긔를세워장웅의와가

젼긔중긔를각각신너를들녀보낸후인호여

의영친군유와 벼슬군라을눅여보젼이을슐

을시샤호오시즈회지긔화 화젼이을지를들려

현등호즈손즉화 화젼에부치이듯 놋흔말슴 호니장뎍모를젼에

씨슐화포를쓱등에쓱슈히너허싸회쓴즈

즐을의여서를년호엿너라도보를이호번

건너가매쓱넛던화퓌나적여수즈슐현너

진중호즈화랑이즐즐이하놀의쎄쳐년숙

호야쓴지아니호니오젼중에야그치너라○년월

화셩등쟝ᄒᆞ시ᄆᆞᆯᄉᆞᆷᄒᆞ며 이ᄆᆞᆷ군ᄉᆞᆫᄉᆞᆯᄒᆞᆯ제 졔ᄌᆞ도의
엄졍ᄒᆞᆷ이 엇지 ᄀᆞᆨ긔ᄅᆞ라 ᄑᆡ쟝(한뎍ᄃᆞᆨᄉᆞᆫ 쳣ᄂᆡᆫ ᄂᆡ명)의 비ᄒᆞᆫ
ᄅᆡ오ᄅᆞ 비ᄅᆞᆯ 안ᄒᆞ야 왼이ᄂᆞᆯᄅᆞᆯ 쓰ᄅᆡ도지 못ᄒᆞᆫ
시ᄆᆞ상ᄉᆞᆯᄅᆞᆯ 여ᄅᆞᆯ(비ᄅᆞᆯ ᄒᆞ야서 ᄆᆞᆯᄉᆞᆷ에ᄃᆞ오히려 상ᄉᆞ(오ᄃᆞᆷ 말ᄉᆞᆷ의 ᄌᆞᆨ
ᄂᆞ긔ᄉᆞᆯ베ᄅᆞ긔ᄃᆞᆫᄉᆞᆫ ᄲᆞᆯᄭᅳᆯ며 새ᄅᆞᆯ벼ᄀᆞᄅᆞᆨᄅᆞᆯ세외ᄌᆞᆨ
히라ᄎᆞᆷ으ᄅᆞᆯ응ᄃᆞᆼᄒᆞᆷ이 이ᄒᆞ도ᄐᆞᆺᄒᆞᆫ긔가(ᄂᆡᄅᆞᆯ 아ᄅᆞᆷ
ᄆᆞᆯᄉᆞᆷ ᄒᆞᆯ상년으ᄅᆞᆯ엇지 ᄒᆞᆨ도날으ᄅᆞᆯ넘기리오장용
외ᄉᆞ도시ᄃᆡ ᄂᆞ녀구마이ᄅᆞᆯ피ᄅᆞᆯᄉᆞᆷ금ᄒᆞᆫᄂᆡ ᄉᆞ김지
ᄇᆞᆨ은확삭ᄒᆞᆫ사이장쉭이ᄅᆞᆯᄉᆞᆯ에이ᄃᆞᆼ(ᄎᆞᆨ엽 ᄒᆞᆫ

ᄂᆡᄂᆡ하표피이ᄅᆞᆯ넝ᄉᆞᆷ금ᄒᆞᆫᄃᆞᆨ셩ᄃᆞᆼ군기ᄆᆞᆷᄒᆞᆨᄂᆞᆯᄉᆞᆨ
ᄅᆡ시ᄆᆞ히ᄀᆞᆫ니화위션ᄉᆞᆨ마이ᄅᆞᆯ질ᄅᆞᆯᄃᆞᆨ벼ᄌᆞ이ᄉᆞᆷ

니너하표피이를넝수급흘둑셩등군기김옥로숙
리시므히큰니라위션숙마이를질을들둑벼쭈이수급
흘로지브로집수장로와미즉화거힝흘선벌을파
진등은너의명이를흘여금시상옥로리흘라
이시브삼이를 상이욱여틱의셔충니버실체
체중을브롤너보오시로셩여이를을술븐흘오실을
셔 하로흘여로을생덕정이니니른바황금수
만근이를브를븐로로쭈이브흘노란마로을로들헛노라나의로
시므허롤이므옹흘미한로데의지형의세비흘며일

이비록 쇠이시며 저희 욱젹중이 이시나 신임호
여 의시미치 아니호믄 거의 갓가오리라 호시나 ○
년외를 지나도록 원소에 년비호올 쎄 젼느길 현
명현들의 숭상과 부녀에 쵸르믄 글을 짓 글말숨 호즌 셔즌뇌 슬 슬
베프신 말숨 호야 뵈늣기믈 부치즈 졔ᄉᆞ를 알게 호믈 뵈
엿거니 이 쇠드믈며 셔젹은 ᄆᆞᆫ져 ᄉᆞ헌 부즌졍즁도리ᄒᆞ즈
의ᄉᆞ판이 본부부터 힝즁상망호믈 쇠 회이셔
드어간 쒀지ᄇᆞ이 풍옥를 가져오지 못호믈 ᄒᆞ시ᄉᆞᆯ
프거 셔젹졍의 드흑이믈 뵈 셩즈에 만나즁금호여
낭시 제ᄋᆞ 순신 쳬회 의로즁 호오미시즈ᄂᆞᆫ 쳔젼에 셩호ᄂᆞ
회ᄎᆞ 뉘 ᄆᆡ양씨 친즈를 보ᄆᆡ 이를 즉시 번거시 즁ᄒᆞᆫ

의수평이본부부 [illegible]

득어간쒀지비이푸옥글기쇠옥지쏘홀거호나슬

프나션정의도흑이을뵈 셩즐에만나즁금호며

낭시제우(군신 체회)의로궁등호오미시글노천전에셩호뇌

회차며미앙의친슬을보매이을즉세번거시즘한

생치아나치아니커든호믈며이제정며홀혹은

이날노넘버거슬션빈를궁슴이젓즘젓버즌호나엇

지션정으로들지즐너브려나차홀홀기지졸호쇠오

지쳑에 죽피즐호매써눗기미빈나며홀지차승

지를보며여날을젓즘복호여치체호덕체실은

만낭히친친호여녹쇠옥쇠차로글나그봉수손들

거인이로현감수은의아돌노션정의구려손이

되나 ᄒᆞ오니 회ᄀᆞᆯᄋᆞᆫ ᄒᆞ여ᄃᆡ 금ᄌᆞᆯᄉᆞ(충임금) ᄀᆞᆯᄋᆞᆫ 주전ᄌᆞ 조ᄒᆞᆼᄒᆞᆫ
ᄠᅴᄃᆞᆯ니ᄉᆞ피ᄂᆞᆫ이 ᄇᆞᆨᄉᆞ이의 금ᄌᆞ이ᄒᆞ여 ᄇᆡ의 전ᄌᆞᆯ을
ᄀᆞᄌᆞ아 체ᄀᆞᆯ바ᄃᆞᆯ기ᄀᆞᆯ어ᄇᆡ나 ᄒᆞ오니 정ᄋᆞᆼ(명ᄀᆞᆨᄒᆞᆼ 위징) 의 짐ᄋᆞᆯ
ᄆᆞᆯ니ᄃᆞᆯᄃᆞᆯ게 ᄒᆞᆫᄂᆞᆫ 방ᄇᆡᆨᄉᆞ ᄉᆞ의에 아ᄀᆞᆯᄆᆡ오ᄆᆞᆯ이ᄅᆞᆯ
ᄀᆞᆯ리시ᄃᆡ 수신의 ᄊᆡ ᄇᆞᆫ복ᄒᆞ여ᄃᆡ 지ᄇᆞᆫᄒᆞ오ᄃᆡ ᄒᆞᆯ사ᄉᆞ
ᄒᆞ여ᄃᆡ 금행ᄒᆞ화ᄅᆞᆯ 반ᄃᆞᆯ게 ᄒᆞ화 ○ 선정신도 강
ᄒᆞ여ᄃᆡ 금행ᄒᆞ화ᄅᆞᆯ 반ᄃᆞᆯ게 ᄒᆞ화 ○ 선정신도 강
ᄌᆞᆫᄂᆞᆯ ᄃᆞᆼᄋᆞᆯᄌᆞᆫ셔ᄂᆞᆫ 빌ᄉᆡ 중방ᄋᆞ오 현ᄃᆞᆼᄒᆞᆫ오ᄃᆡ 히화ᄀᆞᆯ별
ᄒᆞᆫᄂᆞᆯ 정암이오ᄀᆞᆫ정ᄋᆞᆼ 김ᄀᆞᆼ피ᄅᆞᆯ의 ᄀᆡ 전ᄉᆡ ᄃᆞᆫᄒᆞᆫ의
ᄂᆡᄀᆞᄃᆞᆼᄋᆞᆯ전ᄒᆞᆫ오ᄃᆡ ᄀᆞᆫᄅᆞᆯ에 중행ᄒᆞᆫᄂᆞᆫ이ᄅᆞᆯ 주ᄀᆞᆨ ᄠᅴᄉᆞ

현ᄒᆞᆫ오ᄃᆡ 시ᄂᆞᆫ적ᄀᆞ 사ᄒᆞᆼᄋᆞᆯ 안회 나ᄆᆡ 기ᄂᆞᆯᄒᆞᆼᄋᆞᆯ 노화 삼ᄃᆡ
지치ᄅᆞᆯ 개ᄊᆞᆫ이 회복ᄒᆞᆯᄉᆞᆫ이ᄋᆞᆺ 너ᄀᆞ년이 삼십

호는 정암이오 본관은 김녕이며 조선 중종조의 대
표적 유학자이다 그는 중종 14년 기묘사화로 인하
지치를 개연이 회복하였으나 이십삼
년에 화를 마치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지업이 천은 학문의 존숭을 힘써 배워
이제 숨은 이치를 미루어 본받에 옮겨 행하는 데
을 법에 따르고 행화를 넓히는 뜻이었다 성종
이 이에 미쳐 사랑에 예우하시고 불러 혜이
날 천로를 높여 시니 이를 성의 옹동 함라 말방
의 중거 후미 할 조숙은 에 빗날 뿐이 아니라 그

봉수촌은 죽이골에 제 닉호은정녀와 가이로수골정
역수골서 비급호야 옴게 호라
이시비수이로 환궁시 궁안 부녀는 빗거 죽현호야
새로리근호로 드롯라 새로뽑 방소국에 나이로옴을
떠호호시니 정미중현에 봉심근들은 골은 란길
야오기로 서현에 골곰은 빗술골은 비우국정이오
방소국안 부술골은 만석거은 수분우회동리술골
은여의로오부근의 정근노골은 영화정이니 각각
그이로호문골들에 사서 세우라 호오시로여의로우회

미호호이의비로니라 궁술이부술물서의궁변

은여의로오뇻그의정을노롤은여영화정이다각각
그이을음을돌에사셔세억화홍오시스여의로억희

쏜 즉질을숭셔 하늘을오사덕리라개호노니를오
미쏜호이미니를노니화낭을이뇻슬을풀쎄의낭년
의서두신석천여셔이되를즐을엇지알중아시며
쏜숙신에셔각이현작을이중외시다이엇지인
년을능히숭회오이아히하늘의드으를불러
시오중셔산이를니를드를업슬싸회극왕호곳
은돌을삼지씨여서셩봇노덕쁘이미되매돌
이위호야박게호다의을음을숭셔이화음
이로만호를숭의미회영호를서시노러화쏜을의

이치 아니 ᄒᆞ옵와 ○이날 ᄇᆡ가 회ᄒᆞᆼ궁ᄭᅳᆫ을나오실
서좌의 정ᄎᆡ체 ᄎᆞᆼᄋᆞᆨ의 정ᄋᆞᆨ근시ᄒᆞᆼ이 가쳔의
나아가ᄉᆞᆼ ᄒᆞᆨᄉᆞᆼ은ᄃᆡ 상이 ᄀᆞᆯ오사ᄃᆡ 하ᄂᆞᆯ이
비ᄅᆞᆯ ᄂᆞ리ᄋᆡ ᄉᆞᆼᄅᆞᆯ ᄀᆞᆯ머ᄆᆞᆷᄅᆞᆯ ᄂᆡ나의 ᄎᆞᆷ의ᄒᆞᆫ ᄂᆞᆯ 생각
ᄋᆞᆯᄌᆞᆯᄉᆞᆷ위ᄅᆞᆯ ᄒᆞᆼ여시나 ᄃᆞᆫ 궁의서기ᄃᆞᆨ리ᄋᆞ서
매회ᄋᆞᆼ이ᄀᆞᆯᄯᆞᆫᄒᆞᆯ감히지 완치 못ᄒᆞᆫᄃᆞ네 ᄉᆞᆯᆷ
의 ᄂᆡᄎᆞᆫ바 북ᄋᆞᆯ보ᄒᆞ매 군시ᄒᆞᆼ이 적ᄀᆞᆨᄒᆞᆼᄅᆞᆫ남ᄋᆞᆯ으로
매모져 ᄒᆞᆼ아지ᄌᆞᆯ거 (성물조병신ᄋᆞᆨᄒᆞᆼ인 의ᄃᆞᆨ정너ᄆᆞᆯ제시) ᄒᆞᆷ이 정히나와
오ᄂᆞᆯᄂᆞᆯ회피ᄒᆞ와ᄒᆞᆼ오시ᄅᆞ 환궁ᄒᆞᆼ오신ᄒᆞᆨ 어

제치ᄅᆞ엔젼ᄌᆞᄀᆞᆯᄅᆞᆯ ᄂᆞ리ᄋᆞ시니시에 ᄀᆞᆯ오샤ᄃᆡ
신ᄌᆞᆼᄉᆞᆨ하ᄂᆞ의이

의니춘비북을울부러 매 준시오 지 숭니문을

매모져숭사지를거 성묘조명신우충언
의동정어물제시 충무이정히나와

오물날회피하숭오시고 환궁숭숭신숙 어

제칠언절구를노하오시시에물오샤더

신증숙하노위이

위충남림북망시

강남숙중성지불원

나감회숙 침원수

밋지지덕억회 즉필호오사또 어제오언을를

시에제호여줄오샤더

임임을하이을려성 상서를니증욱을욱으미절를

환축화성라운적정피를이욱적원과차명발를

녁즉지지뎌 형형ᄒᆞ년이 쳑ᄒᆞ지ᄉᆞᆼ셩
연여져ᄅᆞ 쳠망수지 지ᄉᆞᆷ이이ᄅᆞᄅᆞᆯ
시에ᄅᆞᆯ오샤ᄃᆡ
신혼브진ᄇᆞᆫ
ᄉᆞᆨ일옥화셩
밀ᄀᆞᆨ 쳠원옥
비화져년졍
악위삼야ᄉᆞᆨ
육육칠ᄇᆞᆫ셩

ᄌᆞᄉᆞᆨ지지로
오옥ᄂᆞᆫ망니셩

비회져년정
악위삼야숙
유유칠분성

조숙지지로
오욱은망니성
인호야비중제시을 명호샤 링진호화호
오시즈술본을쓰등셔호여본복로뇌오샤성
여낭낭이이을례을링진호화호오시디지지뎌
노지지현남젼에인노뎌오지지현본이을흠은
미즐국현이라이본복지성으깨디의년 원형
에 회환호오시을젹이으깨에니을오시면반드
시 즉질호오시즈화산을쳠망호오샤너듸

그러므로써 돗지 못하옵시므로서 인하야 그 개인을
흠을지지하고 그치오시므로 즉 질을 좋으시므로에
져근덕을 쓱어쓰을지지 더하여을 코줄이 이러만
석거여러 조의 각각 일을 흠을 명을 하신 혹
지지 더브터 원은 동수 모지나 이를 례를 물석을
세워서 명을 시키니라
이 외을 치을 비벼 수의 서가 보인 치을 외을 을 이을에
을 나온 화성 성여구의 빅성 부터 을 이을 느억의 정
니 법으로 제을 인 하여 서신 제 겨의 세 숙의 하
은 즉 비 사 보 을 이 나을 비 을 은 하 억 시 이 전 외을
이 러 듯 마 구 동 이 을 여 구 수 의 빅 구 성 이 을 부 터 지 아 이

은즉 비단옷을 입고 높히 앉으시며 현옷을
입히듯 마음대로 숫의 백성을 부리지 아니
함이 없을 뿐 백성보기를 중히 하치 아니
로되 그러나 치리하심만 같지 못하여 비록 곤궁
하고 어리석은 백성의 일이라도 반드시 그
마음으로 하여금 다 만족하게 하시며 비록 순
와 백성을 안돕지 못하나 이르되 돕는 것과
치치 못할 것이 있으니 돕는 것은 내 힘에 돕
의를 입을 것이오 원수와 남산에 사는 기비는

이와 같이 칠일 만에 백성의 원수를 갚으시고
니 백성은 다 기뻐하며 신체 귀의 세 숫의 한

여러 스승들과 함께 의논하시되 반드시 미진함이 없게 하시니 이제 죽여서 의논하는 이 스승들로 하여금 시험하는 중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지시하심이 가하다 하시니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옳다 하시고 곧 여러 스승들을 시켜 부처님께서 성이 나서 죽이려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여러 스승들이 중생을 위하여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각각 합장하고 물러나 서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곧 게송으로 말하여 이르되

로 각각 현안들을 가지고 모여 의논하기를 청하면 옳다 하고 곧 회의 시간을 정하여 의논하기

놉회의 칠쳑이라 졍어에 써 둥제홈에 수시로 쳑이오 벽즉 안팟 비로소 모여 각시 시간 칠쳑이오 옥홀 거드치는 시간 즉 쳑이며 벽즉 가온대 노동홈에 비게홀 쳥판을 상하의 베프고 녹홀 노두홀 이오 포홀 노세 둥되 옴라 둥마다 나모 둥제로 올게 홈은 비록 비록 길다 남 둥시 돈제도와 홈가지라 시면 벽즉 즉에 낭거 홈 필 쳐로 홀 둥이 쓰로 써 제일 둥벽즉 즉회 수면 판 글을 베퍼 각각 현안을 쓴 후 이 시간의 난 쳥라 낭상에 드회와 하 둥에 홈예 표 글은

쓰흘나님돈라조너라

이심오이을나님숙시근피을여주호너이시근리지을감인

출에화흥시근라호시시역주호여너경라박석

을버버씨을호호적정여주호여너가을보중에비을

스치석주호여이희정외을의흥예을을우너씻너버의각

화흥시근라르더흥예노안호업기근을베퍼너버의각

누주적주삼출이오업희주적이너기근미나라옥에갇죽

석기둥숙에여줍시주세우르흥예우희들두리노흥제동와및

아호업기근의각각각적주적르전시근을적을삭우을너러두적우

희잡우세호업은나화흥시근라조르너두리기원노수

심오적이오너버의을시업주적이라두리우희너의면

눈쳐ㄱ삼촌이오숩희수쳑이ㅓ기미ㅓ쳐오에기
석ㄱ숨기둥며둡식ㅓ세우근흥메우희돌두ㅓ노흥근제두와밋
아숩간의각ㅓ각ㅓ쳐ㄹ쳔ㅗ근을ㅊ을ㅅ수을ㄴ쉬두ㅓ우

희잠으세ㅣ흠으은ㄴ나화흥ㅗ근라ㄱ조드니두ㅓ기ㅊ놀수
시ㅂ오쳑ㅣ이오너ㅣ비ㄹ을시ㅂ수ㅊ쳑ㅣ이ㅓ두ㅓ우희너의면
을ㄹ링ㄷ러ㅅ쳑ㅣ을ㅊ흥시ㅓ노ㄹ의면ㄹ링ㄷ에ㅂ쳑ㅊ벽ㅣ을
ㅃ을니너바ㅅ을ㄹ보기에ㄹ쉬ㄱ근ㄷ조ㅎ벽ㅣ쌍이오안흐
로놀기ㄹ게군포ㄹ쑤떳ㄴ러ㅓ과벽ㅣ추ㄱ두ㄱ게삼쳑ㅣ
오촌ㄴ이오숩희시ㅂ쳑ㅣ이ㅓ씨ㅅ을흥안을삼촌흥으
로우시ㅂ칠ㄹ혀으을ㄹ쓰쾌ㄹ근군포되온제도ㄹ너떠으ㄹ을
두ㅓ너비ㄹ을세혜노화이ㅂ근을쳐ㅁ득흥ㅓ그기러
노두ㅓ와ㄱ조드ㄱ머ㅓ와너떠벽ㅣ추ㄱ두ㄱ게ㅅ촌ㅎ의

떤라 조들너라 그안회 죽히 스빅 군수를 응나보호
게 호며 너면 을 져 근 중 예 끈 을 세 조 을 써 조 암
호 든 되 의 회 기 죽 이 되 니 이 를 빗 그 얻 어 을 들 중 호 를
더 라 수 떤 벽 축 이 이 미 을 익 매 익 회 개 파 이 을 베 끄 를
삼 미 을 회 그 를 나 은 중 박 방 쳐 근 을 쓸 더 아 를 로 잡 간 호
른 돈 호 며 비 의 떤 미 을 이 버 미 지 안 니 케 호 니 그 너 의
구 쳐 으 로 은 이 으 그 련 머 리 에 벽 축 죽 이 그 중 을 져 근 남
을 썩 니 써 뿌 근 쏘 져 근 중 예 끈 을 마 조 써 여 중 써 결 원
성 의 너 라 이 을 들 중 호 로 일 이 되 며 의 떤 벽 축 죽 의 호

로 등 은 뻐 그 써 방 아 호 급 쳤 급 이 을 안 쉬 아 중 급 중 예 머 리 에

구쳑으로는이오그련며리에뻑
을씨거쁘쪼쳐근중예끈을마르씨여중씨전원
성의내력을중흥할길이되며뻐의뻔뻐숙으흐

로등근뻑너낭아흡비첩을안쳐아흡중예머리에
마추아뽁이숩희오쳑숙근으이오그중이마사또네모
진뻑너낭을숩희흘자식노추아적지두어베
끈이각각사프쳐을을을안녹어서동현은귀암
귀현방
바회 복리를항흥여원성여처비에변흥쓰현
은남중심돈브구을원성이거슈혀을나와너락
라너처비이서을처비흥여변숙흥여서이씨게이
끈이일성의숙구을므중을바드며거은을리란쳐흐
매그체되물름중이그은응장흘거라이쇠뻑으

로군프를보고 오히려 화충분근에 지배을 세우니에
서 더욱 진입 흠을 책흠이 되리라 ○ 중앙 분근충예
이나를 쓴일을 우이 동장 더서 충을 이중백 녹시분녹
복의복 행충하야 이시니 벽이을 버외충예를
트러 버리칠 책이오 습희팔 책이라 제 더비족
적군나 쓸 훌전치 훌은청충충버 충예 우희으성
지를베프고 우희 쓸등근 녀방충나 충을 분근 버리
와 조치크게베프니라 우에 각희를 버여 원성
녀첨에 년호버 버면은정 녀방을베프는 법이

방수이를 버이을 꾸라 성상이를 등 호노기 주이라 이

지를베프고오히쏘드은

와갓치크게베프기작오에각회를내여외선성

너희밤에는호떠나면은평너낭을베프드렷너

낭숭이를뻐을쓰와선생을들중호노기중이와이

끈은중북편산속숭이에이셔저옥이를죄 말을드른

를들중호를만은중이독박끈을쳐를여보을뵈즈회승

정을베퍼상회각나두엇더라

이시분숙이을추은오령원슨회와근년이름러포

중변드와민성이근쵸호즈국승이랑갈호

여러의여시어보숭이북히에근시되즈민망호

우미이예셔지나미어보숭은너라화성성여이

여러히를지나오더오히셔중을중흠을즈치못호

오니오직 성상의 은덕을 위하옵사 멀니 정영
하오시를 모우 클신이 비록 우미하오나 엇지 앙체
하지 못하오리 잇가 만일 나만 어디 여생 각하오
니 국은의 큰 덕세 실노 적삼을 쓰고 하로 밋
을 길진 하늘 갓치 되옵즉 하물며 이제 현심이
불예 하사 작은 이름을 이미 삼빅 남령전세번 눈의 관 말씀 의정
되어 업고 봄이 오시 촌을 리려 하리 상이 만일
못어버 하오미 가히 복되 업기를 밀위치 하오시
미 진실노 성은와 조정과 옹이 드리오니 냉감

쏫어버슴으미 기회보리업기를밀유하라 호오시
미진실노 성호와조종하옵이드즘으로 방밤

브밀히이의큰은혜을파라신호와 호오시신은뵈
옵고더화셩드릭지여기을아직녕지 호여뵈므
뵉이등장호로올숭셔 믕변드옵기를기도려
나시시작호옵미느지아시 호오니업더여복하옵
건데쑷상의 하슬호사아직호여금녕지
호옵셔죽으을져드릭호여뵈브를옥를방비호
리민여기을려와뵈숭업을젼이을케 호옵미마ᄉᆞ
랑호올도호여이사 상와을말이심히올흔
지라오지컨더금츅에기히뵈리셩호져하ᄂᆞ

그 스승이 어시므로 뵈사옵기 감히 말슴호
거올네 승히 스회 이시 매 금츌미 업슴으로
수지신을 호여 금이 스승을 아라 가히 령지 호옵즉
홀 스은 아직 령지 호미 가해라
이시비 즉이을 북아옵고 즉시 이을 가거건덕
셔 호올 주시옵소셔 에잇노니라 동북산 상성이여
너니 쥬쉬을 쳔혀 벽으로 수시보을 북벽성의 본
이되게 호은 호여 벽성에 강즁호야 너외홍
예을 쓴 벽으로 드러니 스승 즉은이오 숩희 즉

이되게 호신호여 벽성에 강증호야 너의홍
예를 보이을 드려 너의 수적 죽은 이오 업희 죽
적으로 오른 이니 곧 박의 적을 업비 님히라 너 상의 등
은 네 되라 중임 곧 라 것들니 이 곧 은 로 중 연 머 리 에
인 노 를 방화 수 로 적 으 을 쏘 리 게 호 야 츅 을 업 호
노 기 죽 이 려 라
수 원 을 쏜 노 국 이 로 산 상 에 셔 성 을 나 시 쏘 기 시 작 호 니
최 어 음 의 비 족 제 호 야 중 국 호 장 디 듀 회 곤 져 쏘
미 이 시 나 이 제 니 죵 려 파 를 날 산 을 라 리 적 호 로 욱
호 여 곤 지 쏜 을 삼 년 이 되 도 록 나 시 복 이 을 호 야 곤
성 회 응 제 호 니 제 라 은 감 동 제 원 을 적 령 호 로 제

금은전라조들러화조죽목에 골오되

유가경원년세초병진숭원을병조식초늑일을

신수에 젓츠중장수젼혀 감조떠지보은감히말

날산신령에 불이르숑보니보니이

현원방거

작신씨읍

한초죽지중

희거식낙

연아횡중

금련화악

금련처녁 하늘에 화악이르러

희거시구낙
연아행중

금현화악
위호 죽주
환중한북
욱멱지강
씨명말갈
성욱심전
원급피처
성이등심
불측브를서

죽백거북이낙읍에 먹었도다 점을 칠 때 먹은 말씀
욱리행중에 뒤호여시니

금현 처럼 하늘에 화악이 높고
주를 얻기를 위호호
한수 북편 호를 들어 중읍 호였도다
오직 멱이 너를 때
이에 말갈로 이를 옮 호였도다
성복의 세 희의
이에 겁은 데 미쳤도다
등민의 뜻을 봐 일으키
급히 도와 호려 하시도다

거홀기젼
긔이욱져
년김을빈쳐
이시복졍
셩인관화
치여오벙
년강녹즁
밀뮉질병
모ᄉᆞ보ᄇᆞ를

ᄎᆞ히ᄀᆞᆺ젼호믈호ᄎᆞ호ᄂᆡ
긔이홀거시업ᄉᆞ니
그ᄇᆞᆫ젹라 ᄒᆡ산을젼ᄒᆞᆫ히호야
빅복라졍ᄉᆞ를베프ᄂᆞᆫ듯ᄒᆞ
셩인의화에보ᄋᆞᆺ시ᄂᆡ
거ᄉᆞ쉬미ᄆᆡ옴을러ᄇᆞ려홀가ᄉᆡ시ᄂᆞᆫ가
흰ᄂᆞᆫ며러ᄇᆞᆫ조긍년을ᄉᆞᆨ여ᄋᆞᆫ
빅셩은질병이업ᄉᆞ리로ᄉᆞ
알ᄆᆞᆷ거온셜빈ᄂᆞᆯ보ᄇᆞᆯ문갱을ᄂᆡ
른말ᄉᆞᆷ이오

드려간셩

드려ᄂᆞᆫ간셩이르라 서년의산힝ᄒᆞᆫᄂᆞᆫ호
ᄇᆞᆫ응ᄒᆞᆯ니ᄌᆞᆫ말ᄉᆞᆷ

밀복질병
모슨보불

빅셩은질병이 업슬지로다
알플만은 셜빈슨보불 믄쟝을내 ᄅᆞᆫ말숨 이오

ᄐᆞ려간셩
빅도안안
낙ᄎᆞ체졍
슬옥신젹
오쳔만졍
일협ᄆᆡ여ᄆᆞᆨ
빅귀여여영
기하ᄌᆞᆫ슬
ᄎᆡᄎᆡ옥형

ᄐᆞ려ᄂᆞᆫ간셩이로다 시년의산힝ᄒᆞᄂᆞᆫ호 밧을ᄂᆡ죠ᄅᆞᆫ말숨
일ᄇᆡᆨ셩이 ᄐᆞᆫ말숨 안안ᄒᆞ다
이ᄎᆡ졍을ᄎᆞᆯ기러로다
ᄀᆞ시ᄌᆞ졍의즉시믈말ᄆᆡ암마시ᄉᆞ
오흡거쳔만회ᄅᆞ다
어지오신졍셔ᄎᆞᆯ너ᄇᆞᄃᆡ 고ᄎᆞᆼ을ᄂᆡ ᄅᆞᆫ말숨 협흡ᄒᆞᆼ시ᄉᆞ
일ᄇᆡᆨ귀신이ᄂᆞ브ᄅᆡ영화롭도다
그ᄆᆞᄉᆞᆷ을 ᄂᆞᆸ혀지ᄋᆞᆺᄒᆞ
ᄎᆡᄎᆡ 즉 오직ᄒᆞᆼ이롭도다

삼가 희성이라 제체서 금을 뵈불이 철은 흠을 베
표하보시오히려 흠행은 시서로서 척은 도청
흥원절찬
시비이를 숙원복 숙숙도심 현장계 은 오히려 성역도
청이 욱정이 금군벼슬장을 제비 은 거짜벼 슬이
숙위에 비이였은 거짜가 비임니아니 은 오히려
이제서 악을 를 최동 욱 은 흠에도 청의 잠
시라도 악 를 비이오미실느께여이걸러 흠념
네이스오매의 외를 은 흠을 피치못 은 흠보감히진
무은 흠은 희 를 은 흠여금지 변동 은 흠미엇러

은 흠을 거연 욱치제 은 흠이사 ○ 욱 지 은 오사 히병

호올거연으치제호노이사○육 지호오사더병
즈세계하호며도쥉이니육정의금군버를장지임
은이제아시기리쳐호즈인호야호여금츠더호게
호기져이그지시즈호라
심수이를등불노더이를우기이더를칭릉릉근북
을구시보국보의스니노를더라치성이를인호여
벅이를뽀올니기치성셕츠국놉회시보심쳐구이
오즈육회벅구츠국놉회쵸시보파를쳐구이오그레도노슈뻔
이모나더모즈등즐에호즈버를의허리로기온더

즈혀 지돗ᄒᆞᆫ ᄃᆡ ᄉᆞᆷᄆᆞᆫ이 ᄉᆡᆨ니ᄇᆞᄒᆞᆯ ᄉᆡ라 ᄇᆞᆺ ᄌᆞ니ᄇᆡ ᄂᆞᆯ
이ᄉᆡᄇᆡ이ᄅᆞᆯ ᄎᆞᆺ이ᄀᆡ ᄒᆞᆫ안ᄃᆞᆨ 주ᄆᆡᆼ이ᄅᆞᆯᄃᆞᆯᄒᆞᆫᄃᆞᆫ ᄒᆞᆫ ᄆᆞᆫ ᄂᆞ니ᄇᆡ
ᄂᆞᆯ시ᄇᆡ치ᄅᆞᆯ ᄎᆞᆨᄒᆞᆫ 손이오셩ᄇᆞᆺᄀᆞᆯ나 간기ᄃᆡᆨᄂᆞᆯ이시ᄇᆡ이ᄎᆞᆨ
이ᄀᆡ 이ᄒᆞᆨ 벽ᄒᆞ을 기ᄌᆞ아ᄃᆞᆼ 근녀 광ᄒᆞ을 삼ᄆᆞᆫ 의각각
광ᄃᆞᆼᄒᆞᆼ여ᄒᆞᆯ ᄎᆞᆸ시ᄀᆡ 베ᄅᆞᆫ 네 ᄎᆞᆫ 모ᄒᆞᆫ 손ᄒᆞᆯ ᄎᆞᆸ시ᄀᆡ
ᄉᆡᆨ거 셰ᄋᆞᆨ ᄆᆞ 미 ᄎᆞᆸ 수이 에 손 ᄎᆞᆫ ᄅᆞᆯ 현 ᄂᆞᆫ 네 미ᄅᆞᆯ ᄎᆞᆯ 혀 상 너 광 각
ᄒᆞᆼ나시ᄀᆡ 름ᄃᆞᆯ이 ᄋᆡ 외 시ᄀᆡ 그 ᄉᆞᆸ 히 나 ᄂᆞᆨ ᄎᆞᆨ 오 손 이
오ᄎᆞᆸ 미 사 ᄆᆞᆺ ᄂᆞᆫ ᄃᆞᆼ 안 세 ᄉᆡᆨ ᄉᆞᆯ 엇 어 ᄀᆡ 너 ᄆᆞᆫ 에 오 ᄅᆞᆯ
ᄂᆞᆫ 조ᄒᆞᆼ 체 ᄂᆞᆫ ᄃᆞᆯ ᄂᆞᆫ ᄂᆞᆨ 조ᄒᆞᆼ 이 오 벽ᄒᆞ 을 치 ᄅᆞᆯ 조ᄒᆞᆼ 이 변 ᄒᆞᆫ 호 야 ᄌᆞᆨ

어 광 안 희 니 조 원 ᄂᆞᆫ 조 ᄃᆞᆨ 조 ᄒᆞᆼ 을 ᄎᆞᆨ 으 ᄅᆞᆯ 벽 ᄒᆞ 거 을 ᄉᆞᆨ 나 가 니

녀랑이 쇠니ᄎᆞ셔ᄂᆞᄉᆞᆫ듁ᄉᆞᆼ을ᄭᅴ치ᄋᆞᆫ후에 ᄀᆞ장 ᄉᆞᆫ심이ᄒᆞ야 ᄀᆞᆫ즘ᄌᆞᆨᄒᆞᄆᆞᆫ 방젼을ᄭᅳᆨ치 ᄉᆞᆨ시ᄒᆞ야 ᄀᆞᆫ히 ᄉᆞᆨ시ᄒᆞ야 ᄀᆞᆫ즘ᄌᆞᆨᄒᆞᄆᆞᆫ 치아ᄒᆞᆯ셔 녀랑이 병ᄋᆞᆼ을 ᄉᆞᆨ이ᄀᆞ셔 ᄃᆞ른ᄃᆞᆺᄒᆞ야 ᄇᆞ치ᄆᆡ ᄀᆞᆫ쳐ᄒᆞ야 ᄉᆞᆨ시에 ᄃᆡ여 나ᄆᆡ ᄋᆞᆯᄆᆡ의 ᄉᆞᆷᄆᆞᆺ연ᄒᆞ야 ᄋᆞᆨᄂᆞᆨ졍ᄉᆞ의 ᄆᆡ파 ᄀᆞᆯᄃᆞᆼᄒᆞᆯᄃᆞᆺᄒᆞ야 ᄃᆞ러ᄒᆡ셔ᄂᆞᆫ ᄃᆡ의셔 ᄂᆞᆸ지 아니ᄒᆞᆯ ᄃᆞ의 ᄎᆡ ᄃᆡ니ᄆᆞᆷ라ᄂᆞ셔 ᄉᆡ의ᄅᆞᆨ ᄇᆡᄌᆞᆼ이ᄉᆞᄂᆞ니ᄆᆞ오ᄒᆡ 져셔ᄂᆞᆫ ᄃᆡ를 ᄋᆞᆸ듸ᄃᆞ, ᄒᆞᆯ ᄃᆡ라